

#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신 승 열 책임연구원  
최 세 균 부연구위원

|                |                                             |
|----------------|---------------------------------------------|
| 연구 담당자         | 담당 분야                                       |
| 신 승 열<br>최 세 균 | 설계 및 연구 총괄, 제2장, 제3장, 제4장,<br>제2장, 제4장, 제5장 |

## 머 리 말

세계 경제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자국의 산업 보호 및 수출 보조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농업부문도 정부의 개입과 보조를 축소하여 각국의 농산물시장은 보다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1973년 24번째로 OECD에 가입한 뉴질랜드는 주로 농업 관련 수출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1970년부터 1980년대초까지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과 이로 인한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미흡하여 경제 성장이 매우 둔화되는 등 경제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OECD 국가중 경제개혁을 가장 포괄적으로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경제 성장이 그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뉴질랜드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개혁을 실시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경제 협력과 교역이 활발해 지고 있고,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 잠재력도 커질 것으로 평가되어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에 관한 연구는 농정개혁과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지역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뉴질랜드의 농업과 농업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농업정책 및 농산물 무역의 변화와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세아니아주, 특히 뉴질랜드에 대한 국내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에서 이 연구가 관련 분야 여러분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199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

## **제 2 장 뉴질랜드 경제 및 농업 현황**

1. 뉴질랜드 개황 및 경제 현황 ..... 4
2. 농업 및 농산물 무역 현황 ..... 7

## **제 3 장 농업 및 경제정책의 개혁**

1. 개혁의 배경 ..... 16
2. 농업정책 및 경제개혁의 내용 ..... 18

## **제 4 장 농업개혁의 성과 분석**

1. 경제개혁의 성과 ..... 29
2. 뉴질랜드 경제 전망 ..... 31
3. 농업구조의 변화 ..... 32
4.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변화 분석 ..... 37

## **제 5 장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함축성**

1. 개혁의 성공요인 ..... 59
2. 개혁의 특징 ..... 60

## 표 목 차

### 제 2 장

|       |                                               |    |
|-------|-----------------------------------------------|----|
| 표 2-1 | 주요 경제 지표, 1995 .....                          | 6  |
| 표 2-2 | 1994년 뉴질랜드와 한국의 주요 수출입<br>품목 및 금액, 1994 ..... | 7  |
| 표 2-3 | 농업부문 GDP 기여도 .....                            | 8  |
| 표 2-4 | 축산농가 소득 비교 .....                              | 11 |
| 표 2-5 | 주요 품목별 농산물 생산액 비중, 1995 .....                 | 11 |
| 표 2-6 | 농산물 수출 현황 .....                               | 13 |

### 제 3 장

|       |                  |    |
|-------|------------------|----|
| 표 3-7 | 축산업의 정부보조금 ..... | 21 |
|-------|------------------|----|

### 제 4 장

|       |                                    |    |
|-------|------------------------------------|----|
| 표 4-1 | 뉴질랜드 주요 경제 지표 변화 추이, 1980~93 ..... | 30 |
| 표 4-2 | 중기 경제 전망 .....                     | 31 |
| 표 4-3 | 주요 OECD 국가의 PSE 변화, 1979~94 .....  | 33 |
| 표 4-4 | 농지 이용 변화, 1960~94 .....            | 35 |
| 표 4-5 | 가축 두수 변화, 1983~95 .....            | 36 |
| 표 4-6 | 농산물 생산액, 1983~95 .....             | 36 |
| 표 4-7 | 뉴질랜드 주요 농산물의 RC 지수와 시장점유율 변화 ..... | 57 |
| 표 4-8 | 한국시장에서의 CAI 지수 변화 .....            | 58 |

## 부 표

### 제 3 장

|                                            |    |
|--------------------------------------------|----|
| 부표 3-1 부문별 주요 경제안정 및 자유화 정책, 1978~93 ..... | 61 |
|--------------------------------------------|----|

### 제 4 장

|                           |    |
|---------------------------|----|
| 부표 4-1 축산업 품목별 농업보조 ..... | 62 |
|---------------------------|----|

|                                      |    |
|--------------------------------------|----|
| 부표 4-2 주요 농산물의 RC 지수와 시장점유율 변화 ..... | 63 |
|--------------------------------------|----|

# 그림 목 차

## 제 2 장

|         |                   |   |
|---------|-------------------|---|
| 그림 2 -1 | 농지규모별 농가 비율 ..... | 8 |
| 그림 2 -2 | 농가형태별 비율 .....    | 9 |

## 제 4 장

|         |                           |    |
|---------|---------------------------|----|
| 그림 4 -1 | 농가별 실질 농가순수익 변화 .....     | 34 |
| 그림 4 -2 | 농지 실질가격 변화, 1980~93 ..... | 34 |
| 그림 4 -3 | 쇠고기의 RC 지수 변화 .....       | 45 |
| 그림 4 -4 | 쇠고기의 시장점유율 변화 .....       | 46 |
| 그림 4 -5 | 쇠고기의 가격경쟁력 변화 .....       | 46 |
| 그림 4 -6 | 양고기의 RC 지수 변화 .....       | 48 |
| 그림 4 -7 | 양고기의 시장점유율 변화 .....       | 48 |
| 그림 4 -8 | 양고기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    | 49 |
| 그림 4 -9 | 분유의 RC 지수 변화 .....        | 50 |
| 그림 4-10 | 분유의 시장점유율 변화 .....        | 51 |
| 그림 4-11 | 분유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     | 52 |
| 그림 4-12 | 양모의 RC 지수 변화 .....        | 53 |
| 그림 4-13 | 양모의 시장점유율 변화 .....        | 53 |
| 그림 4-14 | 양모의 가격경쟁력 변화 .....        | 54 |
| 그림 4-15 | 사과의 RC 지수 변화 .....        | 55 |
| 그림 4-16 | 사과의 시장점유율 변화 .....        | 56 |
| 그림 4-17 | 사과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     | 56 |



## 부 도

|                           |    |
|---------------------------|----|
| 부도 4-1 치즈의 RC 지수 변화 ..... | 63 |
| 부도 4-2 치즈의 국제시장 점유율 ..... | 64 |
| 부도 4-3 치즈 가격경쟁력 .....     | 64 |
| 부도 4-4 버터의 RC 지수 변화 ..... | 65 |
| 부도 4-5 버터의 국제시장 점유율 ..... | 65 |
| 부도 4-6 버터 가격경쟁력 .....     | 66 |
| 부도 4-7 양모의 RC 지수 변화 ..... | 66 |
| 부도 4-8 양모의 국제시장 점유율 ..... | 67 |
| 부도 4-9 양모 가격경쟁력 .....     | 67 |

빈

면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GATT의 UR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 개방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보조의 점진적 감축으로 농산물시장 또한 시장 기능에 맡겨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1973년 24번째로 OECD에 가입한 뉴질랜드는 주로 농업관련 수출산업이 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조업부문은 수입대체산업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1984년 경제개혁을 시작으로 OECD 국가중에서 농정개혁을 가장 포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중 농업지원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 부문의 보호도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는 1994년도에 쇠고기 생산의 82%를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체 쇠고기 수입의 17.4%를 뉴질랜드에 의존하고 있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199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매년 빠르게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목 전체수입량의 30%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등 한국과 뉴질랜드와의 농산물 교역이 활발해 지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는 아시아지역에 낙농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국 시장 진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낙농국가인 뉴질랜드의 한국진출은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인 한국 낙농업계의 경우 큰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농정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정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개혁을 실시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10년 이상 먼저 본격적인 농업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 등을 경험하여 왔기 때문에 뉴질랜드 농정개혁의 단계와 개혁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및 개혁의 성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효율적인 농정개혁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APEC 지역에서 한국과의 농업부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부문 성장과 수출잠재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원목, 낙농제품 등의 수입선으로서 그리고 APEC 지역의 농업부문 협력국으로서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에 관한 연구는 농정개혁과 시장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뉴질랜드의 농업현황을 파악하고 농업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성공을 거둔 좋은 예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 UR 협상 결과의 이행 등으로 농정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농업현황보다는 농업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수출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경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농정개혁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경제 및 농업 현황, 1984년 시작된 경제개혁의 배경, 경제개혁과 농업개혁의 내용, 개혁에 따른 농업분야의 성과,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의미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업개혁의 성과와 농업구조 변화, 뉴질랜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업구조와 국제 경쟁력을 개혁 이전과 이후의 변화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이 성공한 이유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뉴질랜드 경제 전망을 요약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뉴질랜드의 대학과 관련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았다. 농업개혁의 배경, 성과,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대학, 정부관리, 생산자 단체 등의 전문가를 면담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농업구조와 국제 경쟁력의 변화는 관련 지표 및 지수의 추세치 비교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 경쟁력 분석은 사후적 평가지수(변형된 현시비교우위 지수, 시장점유율 등)와 사전적 평가지수(가격경쟁력)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 제 2 장

# 뉴질랜드 경제 및 농업 현황

### 1. 뉴질랜드 개황 및 경제 현황

#### 1.1. 개 황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하여 호주,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과 인접한 섬나라이며, 남·북섬 총면적 27만km<sup>2</sup>로 영국, 일본과 비슷한 크기로 전국토의 75%가 해발 200미터이상의 고지이나 66%가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는 사계절이 있으나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계절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강수량이 연중 고르기 때문에 목축과 농경에 적합하다.

인구는 1995년에 3백57만명 정도이며, 이중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Maori)족이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에 적합한 북도에 전체인구의 약 75%가 살고 있고, 뉴질랜드는 농업국가이지만 도시지역 (인구 만명이상)에 76%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시와 그 주변에 뉴질랜드인의 약 25%가 살고 있다. 산업별 종사자수의 비율은 농업부문에 10.8%, 식품가공 산업을 포함한 2차산업부문에 23.5%, 서비스산업에 65.7% 종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840년에 뉴질랜드 척식회사를 통하여 영국인이 처음 정착하였으며, 1852년 영국이 뉴질랜드에 자치권을 부여하였으며, 1907년 영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국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제의 자주독립국이며, 의회는 1950년부터 단원제이며 3년마다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에 양대정당의 하나인 노동당에서 국민당으로 집권이 바뀌었고, 1996년 10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뉴질랜드의 국제관계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과 역사 및 경제·무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태평양 포럼(South Pacific Forum)을 통하여 남태평양의 주변국가들에 대하여 역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1983년 호주와 경제협조협약(ANZCERTA)을 체결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무역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경쟁이 증진되었다.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일본, 중국, 한국과의 여행, 무역 등의 교류가 활발하다. APEC, PECC, OECD의 회원국이며, 특히 GATT에서 활발한 자유무역을 제창한 Cairns Group의 일원이기도 하다.

## 1.2. 경제 현황

뉴질랜드 경제는 1995년도에 전년대비 약 6% 성장하였으며, 1996년도에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OECD는 뉴질랜드가 OECD 국가중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의 절반에 못미쳤던 과거 1977~87년도에 비하면, 성장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소규모경제로 한국과 비교해 보면 GDP의 12%, 수출액은 13%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표 2-1 주요 경제 지표, 1995

|                    |        |                     |        |
|--------------------|--------|---------------------|--------|
| GDP(백만NZ\$)        | 86,304 | 이자율(90일은행어음)        | 9.4    |
| 1인당 GDP(NZ\$)      | 24,030 | 대미 달러 환율(US\$/NZ\$) | 0.641  |
| 성장률(%)             | 6.0    | 수출액(백만NZ\$)         | 26,929 |
| 인구증가율(%)           | 1.4    | 수입액(백만NZ\$)         | 25,217 |
| 실업율(%)             | 6.6    | 전년대비 순수출액 증감율       | -3.2   |
| 년평균 임금(시간당) 증가율(%) | 2.1    | 정부부채(십억 \$NZ)       | 32.58  |
| 물가상승률(%)           | 1.7    | 부채/GDP 비율(%)        | 37.6   |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1996.

Quarterly Predicitons,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June, 1996.

물가상승률은 1995년 소비자 물가가 1.7% 상승하였고, 1991년 이후 계속적으로 2%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0~2%를 목표로 금융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 5% 증가하였으나 실업율은 6.6%에 가까워지고 있다.

1994년 6.2%, 1995년 5%로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고, 1987년이전 년평균 13%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내어 OECD 국가중 최악을 기록했으나 1993년 소비자 물가는 약 1.4% 증가하였으며, 1991년 이후 2%를 밑돌고 있다.

재정수지면에서는 1993년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1995/96년에는 재정 흑자를 기록하여 공공부문의 부채의 상황을 재정정책의 최우선으로 책정하고 있다.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액은 비농업분야의 수입 증가로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과의 무역은 1994년 전년대비 뉴질랜드의 수출이 8.7%, 수입이 6.1%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 보면 수출 930백만NZ\$, 수입 300백만NZ\$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품목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품목은 주로 농림수산물과 천연자원이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임산물의 수출이 30% 이상



표 2-2 1994년 뉴질랜드와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금액, 1994

단위: 백만NZ\$

| 수출 품목   | 수출액   | 비율(%) | 수입 품목   | 수입액   | 비율(%) |
|---------|-------|-------|---------|-------|-------|
| 임산물     | 308.4 | 33.2  | 전기, 기계류 | 53.9  | 18.1  |
| 가죽, 피혁  | 144.1 | 15.5  | 플라스틱류   | 33.1  | 11.1  |
| 알루미늄    | 104.4 | 11.2  | 원자로     | 22.4  | 7.5   |
| 고기, 부산물 | 87.0  | 9.4   | 고무류     | 22.0  | 5.5   |
| 수산물     | 51.7  | 5.6   | 자동차, 부품 | 16.4  | 4.7   |
| 기타 축산물  | 39.0  | 4.2   | 필라멘트    | 14.1  | 3.6   |
| 펄프      | 33.6  | 3.6   | 광산물     | 11.2  | 3.4   |
| 녹말, 효소  | 26.9  | 2.9   | 종이, 펄프  | 10.0  | 3.3   |
| 유지 및 기름 | 16.2  | 1.7   | 신발류     | 9.7   | 2.9   |
| 낙농제품    | 14.3  | 1.5   | 철강제품    | 8.7   | 2.7   |
| 기타      | 104.0 | 11.2  | 기타      | 96.0  | 32.2  |
| 계       | 929.6 | 100.0 | 계       | 297.5 | 100.0 |

자료: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1995).

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과 그 부산물 등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전기, 전자, 기계류가 수입 금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등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 농업 및 농산물 무역 현황

### 2.1. 농업 현황

뉴질랜드는 강수량과 일조시간이 목축에 적합하여 농경지의 90%인 13.9 백만ha가 초지이며, 나머지 농경지는 보리와 밀이 약 7% 경작되고 있다. 3%는 원예로 사과, 키위후르츠, 포도 및 채소가 경작되고 있다. 산간지방에는 라디에타 소나무가 주종으로서 대규모 산림 총국토면적의 5% 정도이며, 농경지에서의 경작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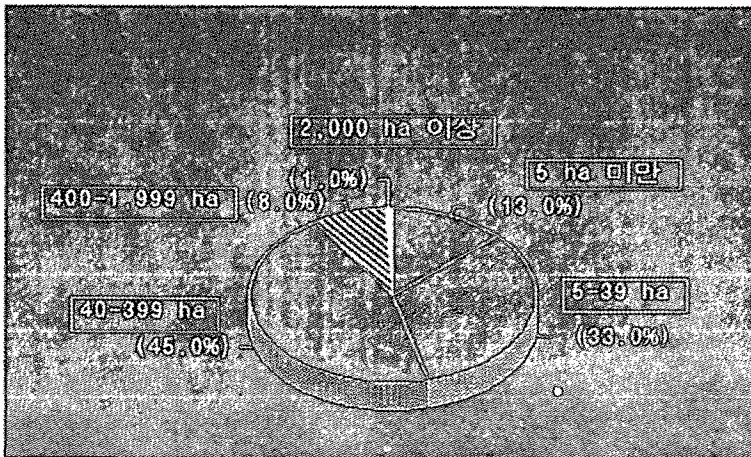
농업과 식품가공업, 기타 농업관련 산업의 생산액이 1995년 GDP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은 GDP의 5.2%로 매년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1996년도에는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일반경제 분야가 농업분야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이다.

표 2-3 농업부문 GDP 기여도

|         | 1992           |            | 1993           |            | 1994           |            | 1995           |            |
|---------|----------------|------------|----------------|------------|----------------|------------|----------------|------------|
|         | 금액<br>(백만NZ\$) | GDP<br>(%) | 금액<br>(백만NZ\$) | GDP<br>(%) | 금액<br>(백만NZ\$) | GDP<br>(%) | 금액<br>(백만NZ\$) | GDP<br>(%) |
| 농업생산    | 4,487          | 6.1        | 4,387          | 5.8        | 4,517          | 5.6        | 4,469          | 5.2        |
| 식품및관련산업 | 7,588          | 10.4       | 8,029          | 10.6       | 8,422          | 10.6       | 8,753          | 10.2       |
| 총생산     | 12,075         | 16.5       | 12,416         | 16.4       | 12,939         | 16.2       | 13,222         | 15.4       |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1996.

그림 2-1 농지규모별 농가 비율



자료: Compendium of NZ Farm Production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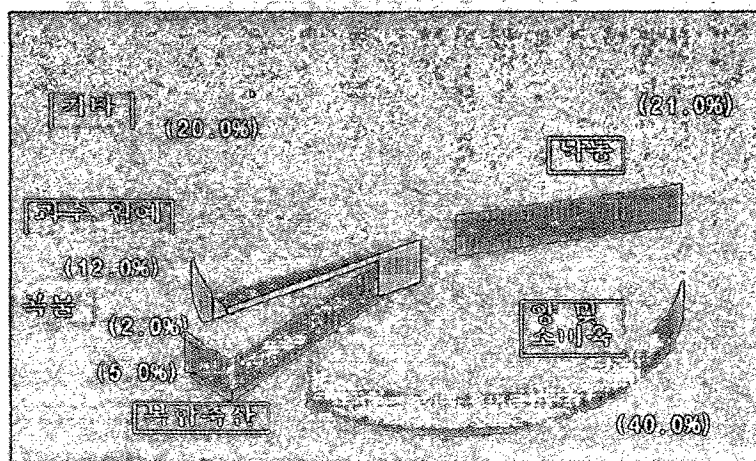
NZ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August, 1995.

1995년도 농가수는 총 68,773호로 농가평균 경작면적은 217ha이며 400ha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농가도 약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은 농장경영주와 소작인(8만7천명), 완전고용인력(2만6천명)을 합하여 11만4천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약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작업의 대부분은 기계화되어 있어 가족노동이 중심이지만, 양모깎기, 과일수확등 대규모 작업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형태별 비율을 보면 낙농농가가 전체 농가의 21%, 양 및 소비육농가가 40%, 축산복합농가가 5%이며, 주로 초지를 이용한 목축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양돈과 양계는 국내소비를 위해 생산되며(양돈의 경우 생산의 80%가 300농가에서 생산), 녹용과 사슴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사슴농장(5천농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모 및 양고기 생산과 소비육사업의 크기는 24,000농가에서 양 4천9백만두와 소 5백2십만두가 사육되고 있고, 전형적인 양 및 소사육농가의 규모는 약 400ha에 양 2,300두, 소 2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 비육생산만

그림 2-2 농가형태별 비율



자료: Compendium of NZ Farm Production Statistics  
NZ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August, 1995.

을 하는 농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업은 14,500농가에서 3백2십만두가 착유되고 있고, 전형적인 낙농농가는 70ha에 착유우 1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체농가의 88%가 북섬에 위치하고 있다. 두당 착유량은 3,560리터(지방을 4.84%)로 초지방목으로 낮아 다른 낙농국가보다 낮고 우리나라의 평균유량 5,700kg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1995년도 곡물생산으로는 밀이 5만2천ha에 경작되어 24만5천톤이 생산되고 있으나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 22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보리는 약 6만8천ha가 경작되고 있으며 국제시장가격과 국내 작황에 따라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가변적이다. 그밖에 귀리(1만4천ha), 옥수수(1만5천ha), 콩(2만ha)이 경작되고 있다. 곡물시장의 경우는 국제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자유로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양돈과 양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곡물생산농가의 세전 순수익이 1995년도에 전년대비 16% 증가한 5만6천NZ\$로 축산농가보다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축산농가인 양 및 소 사육농가와 낙농농가의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1995년도 양 및 소사육농가의 조수익은 양모, 양고기, 쇠고기 등 각 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대비 전체 8% 감소하였으며, 지출에서 비료와 수리·운영비는 각각 15%, 17% 감소되었으나 이자지불은 14% 상승하였다. 세전 총수익은 약 20% 감소되었고 1996년, 97년도에도 지출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조수익의 감소로 세전 총수익은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낙농의 경우 먼저 젖소두수의 증가에 힘입어 우유의 생산량이 1994년도 대비 약 7% 증가하였다. 국제시장의 수요 증가로 국제가격이 1996년도에 전년대비 버터의 경우 33%, 전지분유의 24%로 급상승하였고, 뉴질랜드 낙농위원회(Dairy Board)의 기준가격이 점차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낙농농가의 조수익은 1996년도에 전년대비 약 23% 증가하였다. 1997년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가 계속 되어진다면 낙농농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2-4 축산농가 소득 비교

단위: NZ\$

|                  | 1994    | 1995    | 1996 <sup>e</sup> | 1997 <sup>f</sup> |
|------------------|---------|---------|-------------------|-------------------|
| 양 및 소사육농가        |         |         |                   |                   |
| 조수익              | 167,202 | 153,500 | 143,500           | 137,900           |
| 양모               | 34,187  | 44,600  | 39,100            | 43,100            |
| 양고기              | 67,514  | 50,500  | 51,000            | 47,800            |
| 쇠고기              | 47,584  | 40,200  | 34,300            | 28,900            |
| 기타 곡물            |         |         |                   |                   |
| 총지출              | 118,500 | 114,700 | 111,000           | 110,000           |
| 순수익 <sup>1</sup> | 48,702  | 38,800  | 33,500            | 27,900            |
| 낙농농가             |         |         |                   |                   |
| 조수익              | 190,382 | 192,291 | 236,800           | 232,000           |
| 총지출              | 129,400 | 127,954 | 149,200           | 148,000           |
| 순수익 <sup>1</sup> | 60,982  | 64,337  | 87,600            | 84,000            |

1: 순수익은 세전 농가 순수익.

e: 추정치, f: 예측치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1996.

표 2-5 주요 품목별 농산물 생산액 비중, 1995

단위: 백만NZ\$

| 양모            | 낙농제품             | 쇠고기              | 양고기              | 돼지            | 과실            | 곡물            | 생축            | 기타               | 계                |
|---------------|------------------|------------------|------------------|---------------|---------------|---------------|---------------|------------------|------------------|
| 933<br>(9.1%) | 2,585<br>(25.2%) | 1,394<br>(13.6%) | 1,120<br>(10.9%) | 140<br>(1.4%) | 636<br>(6.2%) | 370<br>(3.6%) | 626<br>(6.1%) | 2,442<br>(23.8%) | 10,246<br>(100%) |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1996.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도 전체 농산물 생산액중에서 낙농제품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가장 높고, 양고기·양모생산이 20%, 쇠고기가 1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축의 생산액이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수출되고 있다. 농업생산액은

낙농분야와 원예분야의 생산액이 증가하는 데 힘입어 1996년도에는 약 1%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2.2. 농산물 수출 현황

### 2.2.1. 수 출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그 비중이 90%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의 수출 비중 감소는 주로 타 부문의 수출증가가 농업부문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목재, 수산물, 광물 등의 수출도 농산물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절대적인 수출량 또는 수출액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농산물은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으로 남아있다. 농산 가공품 수출을 포함하면 농산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다 높아진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쇠고기, 양고기, 양모, 유제품, 사과, 키위 등으로 이들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의 8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수출은 농산물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고기와 낙농제품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양고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 버터와 분유의 시장점유율은 12~13%를 보이고 있다. 양모의 경우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사과의 경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80년 2.5%에서 현재 1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지난 30년간 평균 농산물 수출 물량 증가율은 3.7%로 주요 경쟁국인 캐언즈(Cairns) 그룹의 증가율 5.2%보다 훨씬 낮고 세계 평균 증가율 4.3%보다도 낮은 것이다. 캐언즈그룹 가운데 뉴질랜드보다 낮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필리핀(2.0%) 뿐이다. 수출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 수출가격은 연평균 2%가 감소하여 실제 수출가치는 연평균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수출가격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이 축산물과 사과, 키위 등 일부 원예

작물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1990~95년 기간중 수출액 기준으로 4.6%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생산의 80%가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총수출액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이다. 특히 축산물 수출은 농산물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고기와 낙농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수출이 많고, 양모의 경우 두 번째로 수출량이 많다.

표 2-6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NZ\$

|            | 1983    | 1984    | 1987     | 1990     | 1993     | 1995     |
|------------|---------|---------|----------|----------|----------|----------|
| 육류         | 1,870.7 | 1,704.9 | 2,262.7  | 2,335.1  | 3,087.6  | 2,664.0  |
| 생축         | 60.3    | 60.7    | 153.0    | 193.7    | 172.1    | 140.6    |
| 쇠고기        | 719.6   | 634.8   | 1,024.5  | 1,091.6  | 1,418.7  | 1,160.8  |
| 양고기        | 981.1   | 993.7   | 1,094.4  | 1,093.5  | 1,389.1  | 1,196.7  |
| 낙농제품       | 1,497.3 | 1,426.7 | 1,762.8  | 2,534.2  | 3,369.0  | 3,473.1  |
| 버터         | 657.7   | 562.4   | 510.1    | 710.5    | 796.5    | 725.9    |
| 치즈         | 193.5   | 235.9   | 276.7    | 341.0    | 497.9    | 604.5    |
| 전지분유       | 203.3   | 189.4   | 334.5    | 443.8    | 930.3    | 905.1    |
| 기타         | 423.8   | 418.6   | 571.2    | 983.1    | 968.4    | 1,028.6  |
| 양모         | 1,053.0 | 1,166.3 | 1,677.0  | 1,424.1  | 984.7    | 1,332.0  |
| 가죽         | 185.2   | 200.0   | 537.8    | 494.8    | 377.8    | 438.4    |
| 기타         | 202.7   | 227.4   | 248.9    | 336.1    | 429.5    | 469.9    |
| 총축산물 수출    | 4,869.2 | 4,786.0 | 6,642.2  | 7,318.0  | 8,420.7  | 8,513.0  |
| 키위         | 86.8    | 125.9   | 432.4    | 539.1    | 370.0    | 320.8    |
| 사과, 배      | 60.7    | 89.3    | 127.6    | 218.3    | 349.4    | 491.1    |
| 곡물, 종자     | 65.7    | 108.2   | 130.7    | 193.9    | 386.7    | 534.6    |
| 기타         | 159.9   | 173.1   | 269.4    | 273.7    | 318.5    | 356.4    |
| 농산물 수출(A)  | 5,202.6 | 5,305.7 | 7,580.3  | 8,784.1  | 10,266.6 | 10,814.8 |
| 총수출(B)     | 7,502.9 | 8,366.1 | 11,723.5 | 14,524.6 | 18,240.9 | 20,199.8 |
| 비율 (A/B) % | 69.3    | 63.4    | 64.6     | 60.5     | 56.3     | 53.5     |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1996.

뉴질랜드의 최대 양고기 수출시장은 유럽연합으로 전체 수출량의 51%, 수출금액의 66%가 이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시장의 무관세 시장접근 물량이 1996년부터 생체기준 226,700톤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100%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시장에서도 영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서 양고기 총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1996년도에 광우병(BSE)에 의한 쇠고기 파동으로 양고기와 백색고기로 쇠고기 수요가 일부 대체되어 양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양모수출은 OECD국가들의 의류산업 불황으로 국제시장의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있으나 1997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 낙농제품 시장은 유럽연합의 수출보조금 삭감으로 유제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1996년도 뉴질랜드 낙농농가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최고기록을 나타내었고 우유고형분 kg당 NZ\$4.00의 기록적인 농가수취가격을 받고 있다. 유제품 수출금액의 수출시장별 비중을 보면 유럽연합 19%, 일본 12%, 미국 8%, 기타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품별 수출금액 비중은 전지분유 27%, 버터 21%, 치즈 17%, 카제인 16%, 탈지분유 13%로 구성되어 있다.

쇠고기의 경우, 1995년도 생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지육기준 631천톤이 생산되었다. 생산량의 약 54%인 341천톤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중 미국으로 57%가, 캐나다 12%로 북미가 가장 큰 시장이다. 한국(8.3%)과 일본(7.7%) 등 동북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은 1995년도에 전년대비 23% 증가한 2만8천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쇠고기 소비가 높게 증가하고 있고, 수입쿼터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뉴질랜드산 쇠고기가격이 낮아 호주산 쇠고기의 수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냉동육의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 4%에서 1995년 13.6%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 2.2.2. 농산물 수입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쇠고기의 경우 수입액이 1백만달러를 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이며 현재에도 1천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 양고기의 경우에도 수입은 5백만달러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버터, 분유, 치즈 등 낙농제품의 수입은 더욱 적어 총수입액이 불과 수백만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사과는 1980년 1백 5십만달러가 수입 되었으나 최근에는 1/2 이하로 감소하였다. 양모는 기름을 제거한 형태의 양모를 중심으로 2백만달러 정도가 수입되고 있으나 수출액 5억 달러에 비하면 그 비중은 매우 작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다.

## 제 3 장

# 농업 및 경제정책의 개혁

## 1. 개혁의 배경

### 1.1. 배 경

뉴질랜드는 20세기 초까지 육류, 양모, 낙농제품 등 농산물의 수출로 선진복지국가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공황의 여파로 국제시장의 교란요인이 증가하였고, 세계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의 경제를 세계시장으로부터 격리하여 국제시장의 불안요인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뉴질랜드는 경제개혁 직전인 1983년도까지 국내의 많은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간섭과 보호무역적인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이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외채가 계속 증가하여 뉴질랜드 경제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당시 뉴질랜드 사람 일부는 자신이 생활하고, 교육하고,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으나 정책입안자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뉴질랜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외채는 뉴질랜드 GDP의 80% 수준까지 증가하여 지불불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환율조정 능력이 저하되고 은행들의 도산이 함께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 1.2. 완만한 경제성장기: 1960~74년

1950년대는 한국전쟁과 세계 경제 붐으로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시기이다. 농산물 수출국가인 뉴질랜드는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영국 등의 식품 소비 증가에 힘입어 대부분의 농산물을 영국에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으로 50년대 중반 1인당 GNP 세계 5위의 선진복지국가를 이루었다. 1960~69년기간의 무역 수지는 변동이 심한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물가상승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과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시장인 영국이 EC에 가입하고 각국의 농업보호정책 등으로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은 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부터 물가상승률은 높아져 1971년 OECD국가들의 평균인 5.3%를 상회하여 10.4%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높이는 등 경제전반에 정부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의 재정 및 금융정책은 주로 완전고용과 생산 증가, 상업의 활성화에 두었고, 물가 억제에는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 기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나 고용률은 최고를 기록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의 발전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고용의 기회를 잃을 것으로 우려되어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 1.3. 스테그플레이션 국면: 1975~84년

이 기간동안 국민소득의 성장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 평균 15%의 고물가 상승률과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확대 실시하였다. 1980

년부터 에너지와 철강부문에 대규모 지원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수입대체 산업의 보호 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광범위한 재정정책을 펴 수출보조금 확대, 품목별 가격지지정책 등 뉴질랜드달러의 평가절하에 따른 보상정책을 실시하였다.

1982년에는 경제성장, 물가 등의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금리, 임금, 물가를 전면 동결하는 강압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84년까지 이러한 동결정책은 계속되어 물가상승률을 3.5% 수준으로 안정시켜 부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였으나 재정적자는 GDP의 9.2%로 증가하였다.

영국 노조의 영향을 받은 뉴질랜드 노동조합의 노조가입의무, 중앙집권적 임금협상 등으로 노동시장은 경직되었고, 1984년에는 임금동결조치 해제로 임금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경제개혁의 진전으로 구조적 실업이 가세함으로서 199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률 및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뉴질랜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가불안을 야기시켰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OECD 국가중 규제가 가장 강하고, 경제성장률은 낮은 국가가 되는 시기였다.

## 2. 농업정책 및 경제개혁의 내용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경제 및 농업분야의 개혁의 배경은 1984년까지 제조업분야의 높은 보호에 의한 비효율성의 증가와 농업생산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수출부문은 매우 높은 보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강한 정부 규제의 경제정책하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지향형의 경쟁구조를 지향하여 사기업 및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경제 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다.

## 2.1. 경제개혁

국민당의 규제경제정책 실패로 노동당이 1984년 7월 집권하여 재무상 Roger Douglas에 의한 “Rogernomics”, 즉,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관여와 보조 완화 및 시장의 규제 철폐 등으로 개혁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개혁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두었다. 또한, 사기업,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규제와 통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부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시경제 분야는 뉴질랜드달러의 20% 평가절하로부터 시작하여 금리의 동결조치 해제로 금리 자유화를 시행하고 외환 및 자본거래의 잔존 규제를 철폐하고, 환율제도를 자유변동제로 변경하였다.

재정적자의 감축은 1983~84년 사이에 GDP의 6.9% 에서 1987~88년 2.2%로 감소되었고, 개인소득세의 감축은 최고세율을 66%에서 48%로 인하하고 세제를 단순화하였다. 세입구조를 직접소득세에서 간접세로 점차 전환하고 간접세도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로 단일화하였다.

미시경제분야의 개혁내용은 산업보호를 위한 직접 보조금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회계제도를 개편하여 공공부문의 회계를 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 체계로 전환하였다. 정부부처 인원 감축 및 정부사업을 국영기업으로 분리하는 개혁도 시작되었다.

무역정책분야의 개혁은 대부분의 수입수량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관세를 인하하였고, 수출금융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세제우대 및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였다. 1983년의 호주와 자유무역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으로 호주의 교역량이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특히 호주에 치즈수출이 2배이상 증가하였다.

노동정책분야는 가장 개혁의 속도가 늦었는데 1991년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ts Act)의 제정으로 노동조합 의무가입제도를 임의가입제도로 변경하고 복수노조허용 및 개별 기업단위의 분권적인 임금교섭체제를 확립하였다(육류가공공장의 공장별 임금교섭(site agreement)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또한 법정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게 되었다. 1987년 노동당의 재집권으로 개혁기조를 유지하였고, 1990년 및 1993년 선거의 국민당 집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 2.2. 농업정책과 개혁내용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이후 대부분 개혁이전의 농업정책이 폐지·변경되었기 때문에 개혁이전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개혁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개혁이전의 뉴질랜드정부의 농업정책은 뉴질랜드의 농업을 국제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용을 했으며, 그 결과 뉴질랜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농업자원의 배분이 농업정책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부문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간에서도 어떤 한 산업의 보조정책은 제한된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국민 소득의 감소를 나타나게 된다.

1960년대까지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는 거의 없었고 1963년 정부는 농업은행의 전신인 State Advances Corporation(SAC)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에 대한 금융제도를 만들었으며, 운송과 비료가격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다. 농장개발에 대한 자본지출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였고, 또한 가축 증가에 대한 세금혜택 등 이러한 지원책과 더불어 높은 세계시장 가격, 매우 호의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에 힘입어 축산업의 생산은 1970년대까지 증가하였다. 1974년 농업은행(Rural Banking and Finance Corporation of New Zealand)이 설립되었고, SAC의 역할을 이어받아 총농가부채의 40%를 담당하고 있었다.

1976년 정부는 축산촉진계획(Livestock Incentive Scheme(LIS))을 발표하고 농업은행을 통해 저리융자를 주거나, 일정 기준의 가축두수를 확대하

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상환 감축과 세금의 환불 등을 실시하였다. 1978년에는 이러한 보조정책을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가수취가격과 소득에 대한 최저가격지지정책(Supplementary Minimum Prices(SMP))제도를 주요 축산업에 적용하여 국제시장가격보다 정부의 최저지지가격이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각 품목별 생산자 단체(Producer's Board)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1978년에 정부는 Land Development Encouragement Loan(LDEL)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농지 개발에 따른 무이자 용자와 원리금 상환 감면의 혜택을 주었다.

1979~81년도의 뉴질랜드의 무역수지는 국제식량 잉여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악화되자 생산자들은 정부정책인 SMP에 의존하게 되었고, 1983년에 이르러 정부는 국제시장가격의 변화를 농업보조에 의존하는 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는 각 생산자 단체의 안정자금의 적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1984년도 정부는 생산자 단체의 SMP제도 시행을 폐지하였고, 년차적으로 각 생산자 단체의 금융자금을 시장금리의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중앙은행에 매각하였다. 또한 개혁으로 정부자금에 의존하던 농업은행의 자금운용이 저금리에서 시장금리로 바뀔에 따라 농가 부채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농업은행은 1989년 사기업에 매각되었다.

표 3-1 축산업의 정부보조금

단위: 백만NZ\$

| 회계연도 (3월) | 1970 | 1975 | 1980  | 1982  | 1983  | 1984  | 1986  | 1988  | 1990  |
|-----------|------|------|-------|-------|-------|-------|-------|-------|-------|
| 생산물가격 보조  | -13  | 141  | 136   | 457   | 863   | 694   | 323   | 42    | 35    |
| 생산투입재 보조  | 9    | 33   | 79    | 74    | 71    | 73    | 23    | 14    | 18    |
| 부가가치분야 보조 | 27   | 59   | 189   | 245   | 258   | 326   | 517   | 487   | 153   |
| 총보조       | 23   | 233  | 405   | 776   | 1,192 | 1,093 | 863   | 543   | 206   |
| 총생산액      | 722  | 960  | 2,621 | 3,165 | 3,540 | 3,631 | 3,831 | 4,575 | 6,148 |
| PSE       | 3    | 24   | 16    | 25    | 34    | 30    | 23    | 12    | 3     |
| ERA       | -8   | 38   | 12    | 49    | 123   | 98    | 34    | 15    | -6    |

자료: Ron Sandrey and Russell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MAF.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84년까지는 생산 보조금과 장려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축산업의 농업보조수준은 1984년 농업총생산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농업보조정책으로는 농산물가격지지정책, 농업생산투입재 보조, 생산장려 보조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가수취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정부지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중요하며 수취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율정책, 국제시장수요, 가공 및 운송비, 직접가격지지, 생산자위원회(Producer's Marketing Board)의 규제 및 역할 등이 있다. 생산자위원회는 뉴질랜드의 품목별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하여 농가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Dairy, Apple and Pear, Kiwifruit Meat Producers, Wool Board 등). 또한 정부의 고정환율제도로 인해 농가들은 국제시장가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생산농가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되었다.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 및 운송비는 국제수준보다 높았고, 이는 농가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격지지정책은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1978년에는 최저가격지지정책(SMP)으로 이어졌다. 축산업 중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양모 및 양고기의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가격지지가 쇠고기, 낙농산업의 가격지지보다 높게 이루어져 이들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국제시장의 수요가 감소되어 사료로 가공되어 사용되기까지 하였을 정도로 국제시장가격의 변화가 정부 가격지지에 의해 농가에 반영되지 못하여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낮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반면 쇠고기 생산은 늘어나는 국제시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감소되었다. 높은 농산물가격지지의 이득은 농가뿐만 아니고 가공산업이 그들의 비용절감이나 기술개발의 노력없이 이득을 보았다.

생산투입재에 대한 정부의 보조에 따른 비료의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양모 및 양고기의 경우 비료의 투입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또한 비료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인이 있었다. 정부의 증산 보조정



책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정부보조가, 특히 한계농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농가소득보다 농지의 지가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을 위해 경작되는 경향이 있었다. 농지개발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비료 보조금 지급과 시장이자율 상승과 비교하여 낮은 농업부문에 대한 융자율은 특히 양모 및 양고기, 키위후르츠의 증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출 검역, 연구, 농촌지도사업의 정부의 지원 및 기상재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농업보조정책의 결과 수출위주(농산물의 80%)의 뉴질랜드의 농업 생산물과 요소가격이 국제시장가격과 격리되었고 국제시장과 부합되지 않는 농가의 의사결정에도 납세자 등에 의한 정부지원이 계속되어 이는 뉴질랜드 농업부문이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부문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전반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다.

농업개혁은 앞에서 언급한 거시경제, 노동, 무역, 공공부문의 개혁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농업부문에서 정부보조정책을 가장 먼저 폐지하였다.

농업보조 폐지 내용으로는 비료에 대한 보조, 농업융자 및 생산자 및 유통위원회(Producer/Marketing Board) 계정에 관한 이자율 특혜, 농민에 대한 세제혜택, 농자재 보조, 정부 무료 농업서비스 등이 폐지되었다.

### 2.3. 농산물 무역정책과 개혁내용

뉴질랜드는 1984년 경제개혁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선진국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보호무역을 유지시켜온 핵심적인 무역정책은 고율의 관세와 수입허가제도이며,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의 목표는 첫째, 자국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내 산업기반의 확충 및 다양화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며 셋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넷째, 국제수지의 방어와 관세 수입 증대 등이다.

뉴질랜드는 1888년 관세수입을 목적으로 실시해 오던 관세정책을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자유무역의 기초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8년 관세정책을 국내 산업보호 목적으로 전환하면서 보호 무역의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로 관세 수준은 평균 10%에서 평균 20%로 높아졌다. 관세의 상향 조정과 함께 고율 관세 부과 대상품목도 확대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정책은 이후 40여년간 유지되었다.

뉴질랜드는 1938년 외채와 경제불황을 이유로 수입허가제를 도입하여 보호무역을 강화하게 되었다. 수입허가제도는 이미 도입된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와 함께 외국 상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수입규제 정책으로 뉴질랜드의 외환 사정은 호전되었으나 한번 도입된 수입허가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1984년 경제개혁이 실시될 때까지 50년간 유지되었다. 다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GATT를 비롯한 교역 당사국들의 압력으로 일부 공산품과 원자재에 대한 수입허가제가 철폐된 것이 고작이다. 수입허가제도 적용의 정도를 수입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1960년대 중반의 경우 전체 수입액의 75%에 이르는 매우 강력한 수입규제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뉴질랜드 경제의 개방화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1967년의 IBRD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가 증가해왔으나 실질적인 무역장벽의 완화는 1979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점차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4년 경제개혁 이전까지 수입허가제의 적용품목은 수입액의 20%(1960년대 중반에는 75%에 달함)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966년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New Zealand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수단은 더욱 세분화되어 관세의 경우 완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원자재의 경우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부품에 대한 관세는 완제품과 원자재 중간 정도로 결정되었다.

뉴질랜드의 무역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영국의 EC 가입과 뉴

질랜드의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1973년에 EC에 가입했으며, 이때부터 영국의 뉴질랜드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역외국에게 부과되는 높은 관세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영국의 EC 가입 이전까지는 중요한 수출 농산물인 양고기와 유제품 수출의 80% 이상을 영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영국의 EC 가입 이후 점차 감소하여 15년 뒤에는 의존도가 양고기 50%, 유제품 30%로 감소 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1958~78년 기간은 보호무역을 바탕으로 한 뉴질랜드의 수입대체적 경제발전기로 볼 수 있으며 영국의 EC 가입에 따른 수출선 다변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정책 또는 경제정책은 원료 상태의 물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반면 보호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보다 매우 높게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와 거대한 경제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ibson and Lattimore, 1991).

1984년의 경제개혁은 수출보조와 관세의 대폭적인 삭감 또는 철폐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경제안정화 정책에 의한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4년의 경제개혁으로 수입허가제는 1988년 7월까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수입관세는 Swiss Formula(높은 관세는 높은율로 감축하고 낮은 관세는 낮은 율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최고 1/3까지 감축되었다. 수입허가제의 폐지에 앞서 이 제도로부터 발생하던 지대적 수입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단계적 자유화 조치가 선행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시행된 것은 수입허가제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품에 대한 최소 수입량을 결정하고 이 물량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높은 관세율의 적용 대상은 주로 섬유, 의류, 신발류, 자동차, 카펫 등 매우 제한적인 품목에 한정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허가제나 고율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2.4. 농업관련조직의 개혁

### 2.4.1. 생산자위원회(Producer Board)와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

Producer Board와 Marketing Board는 각각 관장하고 있는 11개 농산물 품목별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은 Producer Board와 Marketing Board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뉴질랜드 농산물과 원예·채소의 수출액중 약 80%가 Marketing Board와 수출관련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수출의 30%에 해당하는 것이 Board에 의해 법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제품과 키위는 각각의 Marketing Board에서 수출을 조정하고 있으며 양고기, 쇠고기, 양모, 사슴고기 등은 관련 품목별 Producer Board에서 수출을 조절하고 있다. 1984년이전의 Producer Board와 Marketing Board 주요 기능은 소비촉진, 마케팅 및 연구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부과금 징수, 시장개입을 통한 국내 및 국제시장의 가격안정과 수출증대, 수출허가권 행사, 농가로 부터의 농산물 독점 구매를 통한 공급 조절 등이 었다. 가장 큰 논쟁은 유제품, 사과, 배, 키위 등의 Board에서 생산자로부터 독점 구매와 수출시장에 대한 조정, 생산자 수취가격의 결정등과 이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국내시장의 가격결정, 가공, 품종개량, 제품개발에까지 깊이 간섭하였고, 가격과 생산의 안정을 위해 생산량할당제(Prodcution Quatas)를 사용하여 공급조절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Producer Board와 Marketing Board의 역할은 경제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984년도 경제개혁으로 기능이 축소되기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밀, 달걀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시유시장, 감자, 사과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수출과 관련된 기능은 천천히 개혁되었고 부분적으로 수출 독점권 및 허가권 등 수출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1986년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저리 자금지원이 폐지된 것으로, 품목별 산업의 적은 비용으로 수출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재정자금의 사용이 중지된 것이다. 또한 1988년 개정법(Producer Board Amendment Act)이 통과되어 정부의 허가나 감독없이 자금의 재원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수익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Board에 참여하는 것을 줄임으로서 잘못된 안정화 정책에 정부의 부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해외 마케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유제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목에 대한 법적인 독점권 인정이 1984년이후에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아직도 사기업의 경쟁체제보다 낮은 관료적인 비효율성과 Board의 유통전략 강화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측면이 맞서고 있다.

#### 2.4.2. 농림수산부 조직 개편

뉴질랜드의 1890년 농림부가 발족하고 초기의 주요 기능은 잡초방제, 가축 질병방제 그리고 농업정보의 확산과 농촌사회의 복리후생의 증가를 위한 활동에 있었다. 이후 검역서비스, 농촌지도사업등이 추가로 확대되었으나 경제 분석 및 농업정책에 관한 기능은 미약하였다. 1972년 수산부문이 추가되어 농림수산부가 되었다.

1984년 개혁전까지는 10개 국에 5,60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부처였으며 대부분 개별 국은 지방하부조직있고 또한 남·북섬에 위치한 방대한 지역단위 사무소로 나누어져 있었다. 개혁이전의 농림수산부의 기능은 농업기술연구사업(과수 및 목축업),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증제도, 농산물 국제기준 협상, 재해보상,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및 농업자금의 집행, 생산자 Board 참여, 질병예방 및 검사기능 등 농산물 국제무역 및 농업생산·유통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 모든 사업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여 매년 운영비용이 증가하였고 기능의 분화 및 지방의 하부조직 구성으로 관리자의 구성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 타부처간의 협

조도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조직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목표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정부 조직에서 개혁을 통해 농업정책과 마케팅 관련 조언을 하는 하나의 기구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정부사업의 사기업으로의 전환등 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개혁 이후 농수산부의 품질인증 및 검사 업무는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되었으며, 농림수산부는 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및 감독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모든 연구 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국립연구기관(Crown Research Institutes: CRIs)로 이관되어 정부가 지원과 관리를 하지만 경쟁체제하에서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도사업은 초기에 서서히 상업화되어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민간 컨설팅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었으며, 농가의 요구에 부응한 지도사업이 농가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농림수산부는 더 이상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가격보조나 생산할당제 등 시장의 개입을 중지하였고, 금융지원 업무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혁 이후 조직은 5개의 사업부서로, 직원은 2,400명 선으로 축소되었다. 가장 큰 인원의 축소는 1,200여명의 연구 관련 직원이 분야별로 10개의 CRIs로 분산되어 진 것이다. 2,400명의 직원중에서도 약 1,000명의 직원은 육류수출관련의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농수산부의 예산 배정과 업무에 있어서는 각 사업부서(Business Group)는 그들 사업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계약을 맺고 농수산부는 정부와 사업별로 용역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 제 4 장

# 농업개혁의 성과 분석

### 1. 경제개혁의 성과

뉴질랜드는 경제 전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뉴질랜드 경제는 개혁 초기에 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기간이 경과한 최근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경제 운용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경제개혁의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의 감축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는 개혁을 통해 긴축금융 정책을 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의 금리동결조치 해제와 함께 긴축금융에 의한 금리 상승으로 1980년대 말까지 금리는 15%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고금리체계는 외환의 유입으로 뉴질랜드 달러화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금리의 인상, 환율의 절상, 각종 보조금 제도의 폐지 등으로 뉴질랜드의 국제 경쟁력은 악화되고 수입 자유화의 확대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은 악

화되었다. 개혁에 따른 부작용으로 뉴질랜드 경제는 실질 성장율의 둔화, 실업의 증가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율은 1987년, 1989년, 1991년 세차례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실업율은 1992년 10.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정에서도 물가안정, 재정적자 감소, 국제수지 등은 꾸준히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개혁 이전인 1980~83년 기간중 14%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에는 1.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4.3%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재정적자는 개혁 이전에 GDP의 8%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1988년부터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는 1980~83년 기간중 GDP의 5.3%에 달했다. 그러나 1988~91년 기간중에는 2.5%로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 기간에 발생했던 부작용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작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는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율은 다른 경제지표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2년까지 10.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문제도 최근의 경기호전에 힘입어 1994년에는 8.1%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율은 OECD 평균 실업율 8.0%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4-1 뉴질랜드 주요 경제 지표 변화 추이 1980~93

| 연 도     |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       | 재정적자 | 경상수지 | 실업율        |
|---------|------------|-------------|------|------|------------|
| 1980~83 | 2.7 (1.4)  | 14.0 (11.4) | -7.9 | -5.3 | 3.7 (7.1)  |
| 1984~87 | 2.6 (3.4)  | 12.6 (7.2)  | -3.3 | -6.9 | 4.0 (7.7)  |
| 1988~91 | -0.2 (2.8) | 5.2 (7.0)   | 2.7  | -2.5 | 7.7 (6.6)  |
| 1992    | 0.4 (1.6)  | 1.0 (4.8)   | -2.2 | -2.3 | 10.3 (7.6) |
| 1993    | 5.0 (1.2)  | 1.3 (4.2)   | 0.1  | -1.8 | 9.5 8.0    |

주: 1) %로 표시된 것임. 재정적자와 경상수지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 )는 OECD 평균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뉴질랜드 금융-경제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1996. 3.



## 2. 뉴질랜드 경제 전망

1996년 10월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개혁의 가속화보다는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폭의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984년 경제개혁의 후속 조치와 점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경제는 향후 연간 2.5%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물가·고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2000년도까지 2%선을 밑돌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경제 규모가 작고 국민 저축율이 현재의 1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금리 정책을 통해 해외의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질랜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 통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뉴질랜드 경제, 특히 농업부문의 수출 증대와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긴축통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중기 경제 전망

| 회계연도 3월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실질경제성장률(%)        | 1.8   | 2.8   | 3.7   | 3.5   | 2.8   |
| 물가상승률(%)          | 2.1   | 1.5   | 1.8   | 1.4   | 0.9   |
| 실업률(%)            | 6.2   | 6.3   | 6.1   | 5.9   | 5.6   |
| 정부 부채, GDP의 비율(%) | 31.7  | 29.4  | 27.7  | 25.5  | 22.2  |
| 환율(\$US/\$NZ)     | 0.672 | 0.690 | 0.711 | 0.732 | 0.751 |
| 이자율(90일은행어음)      | 8.7   | 9.4   | 9.2   | 8.3   | 7.7   |

자료: NZIER Quarterly Predictions, June 1996.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3. 농업구조의 변화

뉴질랜드 농업정책의 개혁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 각부문에 대한 보조의 폐지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며 이는 농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보조폐지에 따른 결과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86년도의 평균 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s) 24%에서 1994년 3%로 낮아졌고 이는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축산 부문내에서의 농업보조 변화 추이를 <부표 4-1>에서 살펴보면 양고기생산분야가 가장 높은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와 중반에 보조수준은 SMP와 생산자 Board의 안정자금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다른 쇠고기, 낙농분야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양고기생산에 대한 PSE는 보조정책이 축산부문내에서 자원분배의 왜곡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모생산에 대한 보조도 주로 SMP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1983년도에 PSE가 30%를 기록하였다.

쇠고기생산에 대한 보조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오히려 1984년과 1985년도의 양고기에 대한 보조가 최고를 달할 때는 실질적으로 쇠고기농가는 국제쇠고기시장가격의 강세로 생산자 Board의 안정기금에 부과금을 내기도 하였다. 낙농농가에 대한 보조는 낙농산업기금(Dairy Industry Account)을 통하여 1975년도와 1980년에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도만 SMP에 의해 보조가 있었다. 그러나 시유시장에 대해서는 1987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보조가 지속되었다.

축산업의 보조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가소득의 감소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전반적으로 주요 목축업인 양 및 소사육농가 뿐만 아니라 낙농농가의 소득도 감소되었다. 1985~89년도의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의 폐지와 더불어 뉴질랜드달러의 평가절상, 높은 물가상승률,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육류 및 낙농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으

표 4-3 주요 OECD 국가의 PSE 변화, 1979~94

|             | 1979 | 1986 | 1990 | 1994 |
|-------------|------|------|------|------|
| 미국          | 13   | 35   | 23   | 21   |
| 일본          | 66   | 74   | 65   | 74   |
| E C         | 41   | 50   | 47   | 50   |
| 캐나다         | 19   | 47   | 46   | 27   |
| 호주          | 7    | 14   | 12   | 10   |
| 오스트리아       | 31   | 45   | 50   | 62   |
| 아일랜드        | 69   | 79   | 84   | 73   |
| 뉴질랜드        | 15   | 33   | 5    | 3    |
| 노르웨이        | 71   | 75   | 75   | 75   |
| 스웨덴         | 45   | 57   | 58   | 51   |
| 스위스         | 68   | 78   | 79   | 82   |
| 터어키         | 30   | 24   | 31   | 10   |
| OECD (가중평균) | 32   | 47   | 42   | 43   |

자료: OECD Economics at a Glance: Structural Indicators, OECD, 1996

나 생산 요소가격과 가공비용, 운송비의 하락으로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양 및 소 사육농가의 경우 낙농농가보다 개혁이전에 보조가 높았기 때문에 개혁이후 소득감소폭은 낙농농가보다 컸고, 낙농농가의 소득수준은 1990~94년에 개혁이전으로 회복하였다.

농지가격은 1982년까지 높은 물가상승과 수요증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다 84년 개혁이후 1988년까지 경상가격으로 78%, 실질가격으로 약 50%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가 어느 정도 농지가격으로 자본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93년의 농지가격은 개혁이전으로 회복되었고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까지 농지는 정부의 농지개발촉진계획에 따른 한계농지의 개발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농지이용의 변화는 규제완화와 보조없는 개혁이후의

그림 4-1 농가별 실질 농가순수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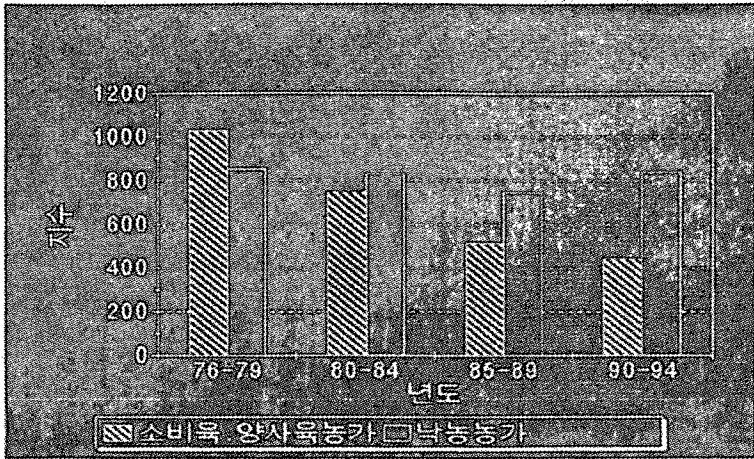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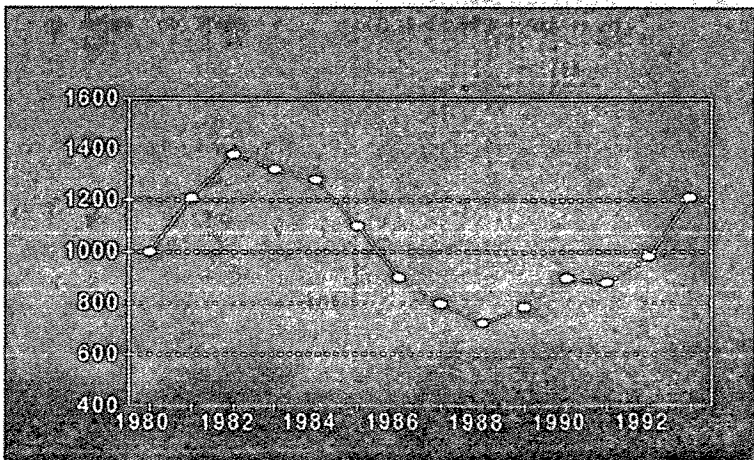


그림 4-2 농지 실질가격 변화, 1980~93



농업부문별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양, 소, 사슴 등 목축분야 내에서의 전환이 아니라, 양·소사육농가에서 낙농, 원예, 조림지, 도시화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규모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한계농지의 경작이 줄어들어 농가수가 1983년 7만5천농가에서 1990년 8만, 1995년에는 68천농가로 감소되었다.

가장 두드러지진 양상은 양·소비육농가의 초지가 1.93백만ha가 줄어든 것이고 이중 0.48백만ha는 원예, 화훼, 과수, 양봉 등으로 전환되었고, 낙농의 경우도 도시주변의 낙농농가가 도시화되면서 양·소사육농가의 생산성 높은 초지를 이용하여 보다 집약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0.45백만ha). 산림조림지로서 양·소비육농가 초지의 이용도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0.45백만ha), 사슴농장으로 전용(0.15백만ha)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혁이전의 농업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축두수 변화는 양의 경우 1984년이후 약 30%가 감소되었고 유우의 경우 28% 증가하였다. 특히 사슴의 경우 3.5배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4 농지 이용 변화, 1960~94

단위: 백만ha

|       | 1960  | 1984  | 1994  | 변화율(%)<br>1984~94 |
|-------|-------|-------|-------|-------------------|
| 양·소   |       | 11.83 | 9.90  | -16               |
| 유우    |       | 1.27  | 1.72  | 35                |
| 사슴    |       | 0.05  | 0.20  | 300               |
| 기타 초지 |       | 1.24  | 1.72  | 39                |
| 초지 합계 | 15.34 | 14.39 | 13.54 | -6                |
| 농가 산림 |       | 0.14  | 0.14  | 0                 |
| 조림    |       | 0.90  | 1.35  | 50                |
| 산림 합계 | 0.38  | 1.04  | 1.49  | 43                |
| 기타    | 1.85  | 2.29  | 1.58  |                   |
| 계     | 17.57 | 17.72 | 16.61 | -6.2              |

자료: Davison, R.M. Agricultural land use change with reference to sheep and beef farm land, Paper No. G2107, NZ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July 1996.

표 4-5 가축 두수 변화, 1983~95

단위: 백만두

|     | 1983  | 1984  | 1987  | 1990  | 1993  | 1995  |
|-----|-------|-------|-------|-------|-------|-------|
| 양   | 70.3  | 69.7  | 64.2  | 57.9  | 50.3  | 48.8  |
| 유우  | 3.1   | 3.2   | 3.2   | 3.4   | 3.6   | 4.1   |
| 비육우 | 4.5   | 4.5   | 4.8   | 4.6   | 4.8   | 5.2   |
| 사슴  | 0.195 | 0.259 | 0.500 | 0.976 | 1.079 | 1.179 |
| 염소  | 0.150 | 0.230 | 1.054 | 1.063 | 0.353 | 0.337 |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개혁에 의한 농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가축두수가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농산물 생산액도 변화되었으나 농산물 생산액은 부문별 생산성과 국제시장가격에 따라서도 변화되고 있다. 낙농의 경우 지방율의 향상과 두수

표 4-6 농산물 생산액, 1983~95

단위: 백만NZ\$

|           | 1983  | 1984  | 1987  | 1990  | 1993   | 1995   |
|-----------|-------|-------|-------|-------|--------|--------|
| 양모        | 755   | 935   | 1,226 | 1,252 | 737    | 933    |
| 양고기       | 499   | 518   | 646   | 865   | 1,037  | 1,120  |
| 쇠고기       | 717   | 720   | 974   | 1,187 | 1,559  | 1,394  |
| 낙농제품      | 1,183 | 1,198 | 1,212 | 2,166 | 2,536  | 2,585  |
| 돼지        | 86    | 89    | 110   | 125   | 134    | 140    |
| 닭고기, 계란   | 146   | 143   | 179   | 215   | 207    | 237    |
| 곡물 및 종자   | 267   | 286   | 307   | 338   | 343    | 370    |
| 과실류       | 213   | 238   | 531   | 623   | 728    | 636    |
| 채소류       | 225   | 274   | 324   | 412   | 450    | 485    |
| 생축        | 558   | 743   | 607   | 721   | 884    | 626    |
| 기타        | 440   | 755   | 707   | 1,380 | 1,520  | 1,720  |
| 계         | 5,092 | 5,900 | 6,822 | 9,284 | 10,135 | 10,246 |
| GDP 비중(%) | 6.8   | 7.0   | 5.5   | 6.4   | 5.8    | 5.2    |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증가로 인해 현저히 증가되고 있고 또한 국제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농지이용이 양·소사육농가에서 낙농, 원예, 채소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생산액이 개혁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과실류 및 채소류는 1984년 개혁이전과 1995년을 비교할 때 각각 3배, 2배 이상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 4.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변화 분석

### 4.1. 국제경쟁력

뉴질랜드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뉴질랜드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뉴질랜드 경제는 1984년 경제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다. 외환,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경제는 국내시장이 협소한(인구 350만명) 특징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변화 분석을 통해 개혁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우위 이론은 국제 무역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경쟁력에 대한 전통적 설명도 주로 리카도(Ricardo)와 헤셔-올린(Heckscher-Ohlin) 등에 의해 정립된 비교우위 이론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비교우위 이론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상황 하에서 어느 국가의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교우위나 국제경쟁력 등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부문에 많은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투자를 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국제 경쟁력과 비교우위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비교우위는 경제왜곡이 없는 상황하에서의 교역유형에 관한 이론이다. 경제왜곡이 없는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이때에 교역국간의 상대적 가격비 또는 생산비의 비율에 따라 비교우위는 결정된다. 이때 가격은 진정한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되며 폐쇄경제하의 가격비가 낮은 품목을 수출하게 된다. 비교우위는 절대가격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어느 산업의 절대 생산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더라도 그 산업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은 비교우위와 같이 학문적으로 확정된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가 경제왜곡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 때 비교우위는 사실상 계측이 불가능 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비교우위 개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개념이다. 경쟁력은 동일 품질의 상품을 고려할 때 시장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며 절대적 가격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구분하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으나 모든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

시장가격은 여러 가지 경제왜곡이 반영된 가격이다. 여기에는 가격지지 정책, 유통 관련 정책, 보조금, 환율, 거래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력측정은 이러한 드러난 가격의 비교에 의해 간단히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상품에나 품질의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는 국제 경쟁력 측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측정에 있어서의 가격 비교가 가지는 제약 때문에 가격 비교 이외에 국제 경쟁력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국제 경쟁력의 개념과 측정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다. 국제 경쟁력의 개념은 하나의 단일화된 형태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는 국제 경쟁력이 포괄하고 있는 수출 능력,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 정도, 생산력의 증대 등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대표하는 하나의 개념을 발견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정의하면 기업 수준에서는 어느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기업보다 싸게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수준에서 국제 경쟁력은 국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유지 또는 확대 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 된다<sup>1)</sup>.

따라서 국제 경쟁력은 다름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업 수준에서든 국가 수준에서든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국부가 경쟁력 강화, 유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은 동태적 개념으로 국제 시장에서 상대적 효율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4.2. 국제 경쟁력의 측정 방법

국제 경쟁력은 주체에 따라서는 기업, 국가 등으로 구분되고 장소에 따라서는 국제 시장과 국내 시장으로 구분된다. 경쟁의 대상에 따라서는 상품, 자본, 기술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국제 경쟁력의 개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측정 목적에 의한 것이다. 국제 경쟁력의 측정 방법에는 사후적 평가와 사전적 평가가 있다. 사후적 평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된 성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후적 평가 방법으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tage Index, RCA)와 시장 점유율이 있다. 사전적 평가 방법은 경쟁력 변화에 영향을 요소들과 관련된 것으로 미시경제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측정 방법으로는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등이 있다. 사후적 평가 방법이 사전적 평가 방법보다 포괄적이다. 그러나 사전적 평가 방법은 이용이 편리하고 간편하여 시기 적절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sup>1)</sup> Han, J. Y. et. al, 1989.

#### 4.2.1. 사후적 평가 방법

##### 가.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발라사(Balassa)에 의해 개발된 지수로 시현된 교역유형을 평가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지수는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의 국제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 수출국의 총상품 국제 시장 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이 특정 국가의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비극우위 개념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수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요소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자료의 입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내 무역이 간과되는 단점을 가진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산업내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입구조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수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CA = (X_{ij}/X_{wj})/(X_{it}/X_{wt})$$

여기서,  $X_{ij}$  = 특정국 i의 j 상품 수출

$X_{wj}$  = j 상품의 세계 전체 수출

$X_{it}$  = 특정국 i의 전체 상품 수출

$X_{wt}$  = 세계 전체 상품 수출

따라서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수가 클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 나. 현시경쟁우위 지수(RC)

현시경쟁우위 지수(Revealed Competitive Advantage, RC)는 수출국의 수입구조를 고려하여 RCA 지수를 보완한 것이다. RC 지수는 RCA 지수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빼거나 나눈 형태로 나타낸다. 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은 수출을 나타내는 RCA 지수 계산식에 수출 대신 수입을 대체하여 구한다. RC 지수는 다음과 같다.

$$RC = RCA - (M_{ij}/M_{wj})/(M_{it}/M_{wt})$$

여기서, M은 수입을 의미하며 아래첨자 들은 RCA 지수 계산식과 같다.

#### 다. 국별 비교우위 지수(CAC)

RCA 지수와 RC 지수는 모두 어느 국가의 특정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들 지수는 수출국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의 특정 상품이 세계시장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가지는 경쟁력과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이 국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 CAC) 지수이다. CAC 지수는 RCA 지수 형태와 유사하나 수출의 비중을 RCA 지수 계산시 사용된 국제 시장에서의 비중이 아닌 수출국에 대한 비중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CAC 지수는 수출국의 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수입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CAC 지수는 다음과 같다.

$$CAC = (SX_{ij}/SX_{it})/(X_{ij}/X_{it})$$

여기서,  $SX_{ij}$  = 수입국 S에 대한 수출국 i의 j 상품 수출

$SX_{it}$  = 수입국 S에 대한 수출국 i의 총수출

$X_{ij}$  = 수출국 i의 j 상품 수출

$X_{it}$  = 수출국 i의 전체 상품수출

#### 라.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 지수(CAI)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by Import Structure, CAI) 지수는 CAC 지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수입국의 수입

구조를 지수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CAI 지수는 다음과 같다.

$$CAI = (CAC)/((SM_{jt}/SM_t)/(M_{jw}/M_{wt}))$$

여기서,  $SM_{jt}$  = 수입국 S의 j 상품 수입

$SM_t$  = 수입국 S의 총수입

$M_{jw}$  = 세계 전체의 j 상품 수입

$M_{wt}$  = 세계 전체의 총수입

#### 마. 시장점유율(MS)

경쟁력의 사후적 평가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느 국가 또는 상품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r, MS)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은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의 경우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MS_{ij} = (M_{ij}/\sum M_{ij}) * 100$$

여기서,  $M_{ij}$  = i 국으로부터의 j 상품 수입

### 4.2.3. 사전적 평가방법

#### 가. 가격경쟁력(PC)

국제 경쟁력의 사전적 평가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PC) 분석이다. 어느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과 비가격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경쟁력은 주로 생산의 효율성, 마케팅 능력, 조세정책,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비가격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과 상품 차별화의 정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그러나 비가격 요소는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격 경쟁력은 생산비, 국내 판매가격, 수출가격 등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비의 비교는 어느 상품의 경쟁력에서 마케팅 능력이 차지

하는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별 국내 판매가격의 비교는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운송, 통상 능력 등을 포함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 평가를 위한 가격 경쟁력 측정은 수출가격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을 지수화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쟁국의 가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수출국(i) 상품(j)의 가격으로 나누어 그 값이 1보다 크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PC = P_{cj}/P_{ij}$$

여기서,  $P_{cj}$  = 경쟁국 j 상품의 가격

$P_{ij}$  = i 국 j 상품의 가격

### 4.3. 뉴질랜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변화

#### 4.3.1. 대상 품목 및 자료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쇠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양모, 사과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수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뉴질랜드 농산물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 가운데 쇠고기, 양모, 양고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FAO의 Trade Yearbook, 뉴질랜드의 무역통계연보, 한국의 무역통계연보 등이다. 분석 기간은 국제 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이며 한국 시장의 경우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한국 시장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본격적인 농산물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분석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경제개혁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혁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국제 경쟁력 향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농업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개혁 이전의 경쟁력은 1981~83년 기간의 평균을 이용하고 개혁 이후의 경쟁력

은 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작된 1986~88년 기간과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최근 3년(1991~93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 4.3.2. 이용된 지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수는 사후적 평가방법으로는 RCA 유형의 지수가운데 수입구조를 반영한 현시 경쟁우위 지수(RC)와 시장점유율(MS)을 이용하였다.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 지수(CAI)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다. 사전적 평가방법 가운데서는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가격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왜곡 현상은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물론 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기에는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인하여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조정기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된 여러 가지 국제 경쟁력 지수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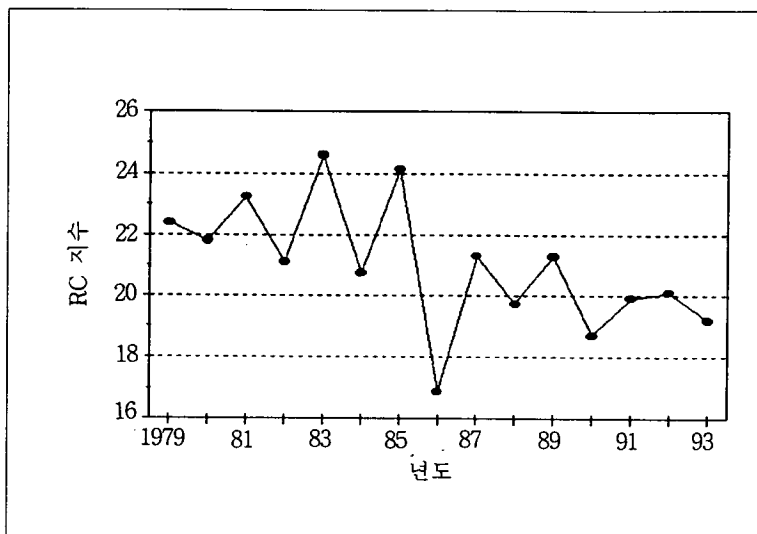
#### 4.3.3. 품목별 국제 경쟁력 변화

##### 가. 쇠고기

분석 기간인 지난 15년간(1979~93년) 뉴질랜드 쇠고기의 RC 지수는 17에서 2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수가 1이상 이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쇠고기 산업은 매우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고기의 RC 지수는 농업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업개혁 이전 3년간(1981~83년)의 RC 지수는 평균 22.7이었으나, 개혁 초기(1986~88년)에는 19.7로 하락하였다.

그림 4-3 쇠고기의 RC 지수 변화



이러한 RC 지수의 감소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1991~93년 기간 중에는 평균 19.3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RC 지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쇠고기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농업개혁이 실시된 1984년 이전에는 6% 이상을 유지했으나 개혁 이후에는 6%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혁 전후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1981~83년 기간중 시장점유율은 평균 6.7%, 1986~88년 기간중 평균 5.2%, 1991~93년 기간에는 평균 5.4%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2).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세계 평균가격과 9개 주요 경쟁국들의 가격을 뉴질랜드의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따라서 지수가 1보다 큰 것은 경쟁국의 가격이 뉴질랜드 가격보다 높다(뉴질랜드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쇠고

그림 4-4 쇠고기의 시장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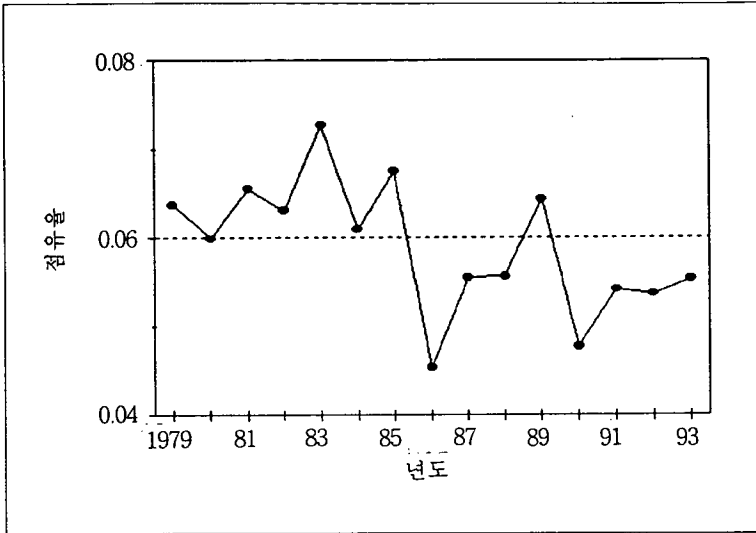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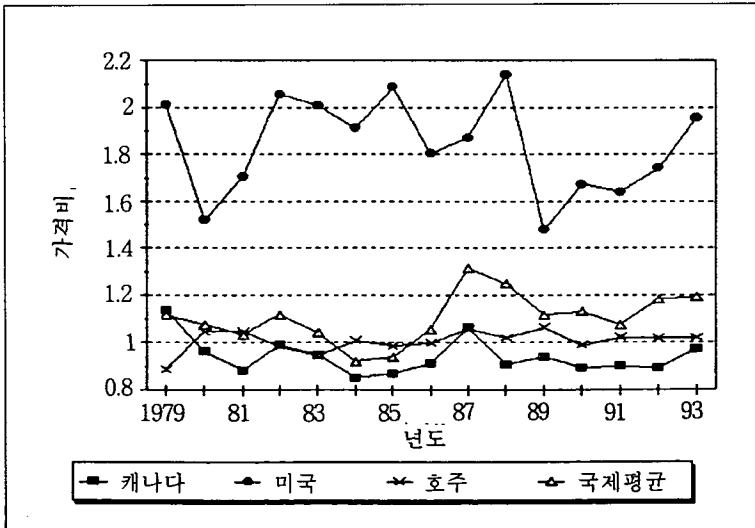


그림 4-5 쇠고기의 가격경쟁력 변화





기 수출가격은 국제 평균과 미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높다. 호주와는 비슷한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개혁 전후의 가격경쟁력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나. 양고기

뉴질랜드 양고기의 RC 지수는 127에서 17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양고기 산업은 매우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고기의 RC 지수는 농업개혁 직후 급격히 하락하여 1989년에는 최저치인 127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40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개혁 이전 3년간(1981~83년)의 RC 지수는 평균 159이었으나 개혁 초기(1986~88년)에는 146, 1991~93년 기간 중에는 평균 141로 하락하였다.

양고기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RC 지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양고기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농업개혁이 실시된 1984년 이전에는 40% 이상을 유지했으나 개혁 이후에는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혁 전후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1981~83년 기간중 시장점유율은 평균 46.4%, 1986~88년 기간중에는 평균 39.4%, 1991~93년 기간에는 평균 28.9%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6 양고기의 RC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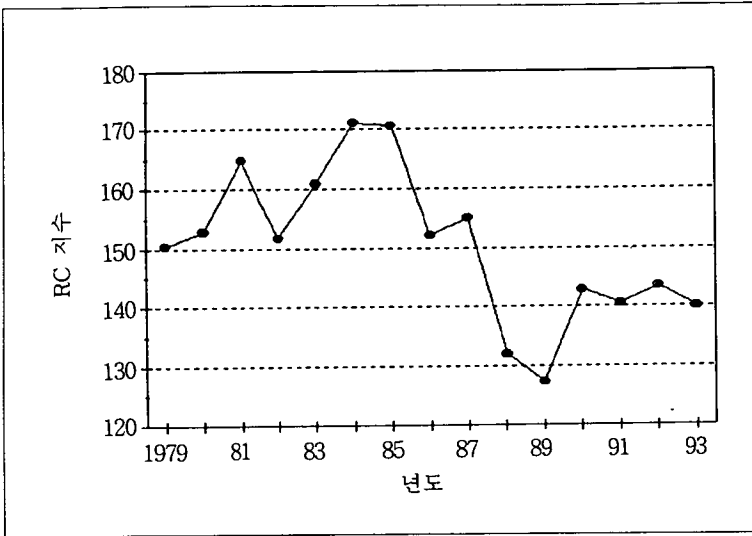


그림 4-7 양고기의 시장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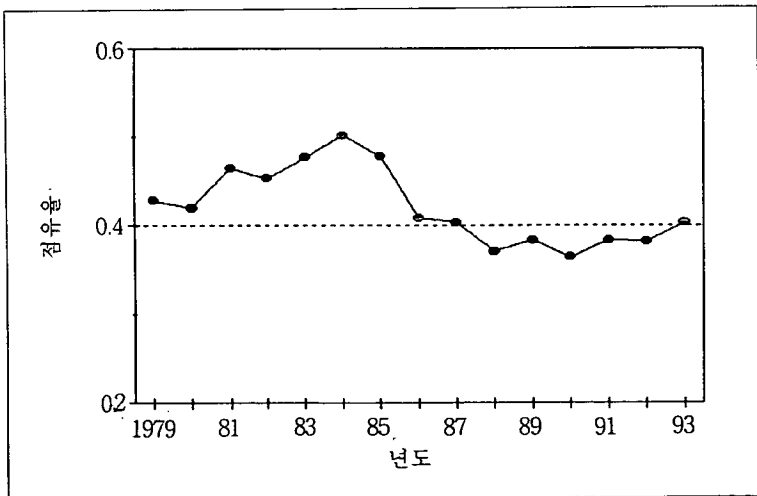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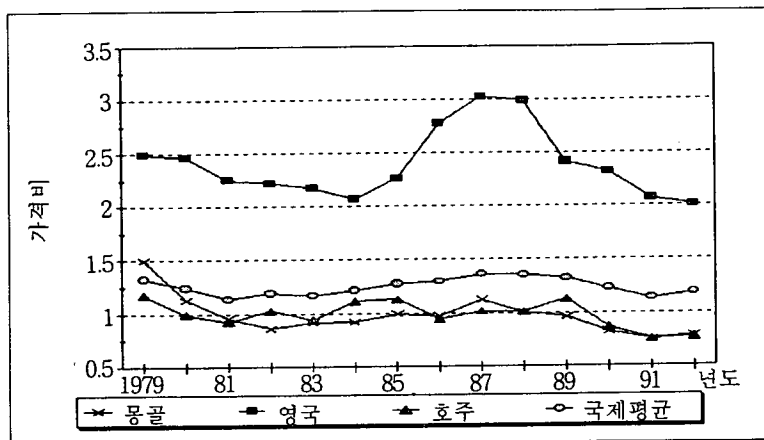


그림 4-8 양고기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뉴질랜드의 양고기의 수출가격은 국제 평균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낮으나 몽골에 비해서는 높다. 반면 호주와는 비슷한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격경쟁력이 호주에 뒤지고 있다. 개혁 전후의 가격경쟁력 변화는 뚜렷하지 않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 다. 분 유

분유는 낙농제품 가운데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다. 이 연구에서는 낙농제품 가운데 분유 이외에도 버터와 치즈에 대한 국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 변화가 분유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록의 표와 그림으로만 처리하였다. 관심있는 독자들은 부록의 표와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분유의 RC 지수는 19에서 4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분유 산업은 매우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분유는 앞서 분석한 쇠고기와 양고기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

고 있다. 분유의 RC 지수는 1980년대 초반에는 정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개혁 직후에도 급격한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1988년에 개혁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농업개혁 이전 3년간(1981~83년)의 RC 지수는 평균 33이었으나 개혁 초기(1986~88년)에는 2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1~93년 기간 중에는 평균 42로 경쟁력이 개혁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분유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RC 지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분유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농업개혁이 실시된 1984년 이전에는 10%까지 상승하였으나 개혁 직후에는 7%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 전후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1981~83년 기간중 시장점유율은 평균 9.8%, 1986~88년 기간중에는 평균 7.7%, 1991~93년 기간에는 평균 11.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9 분유의 RC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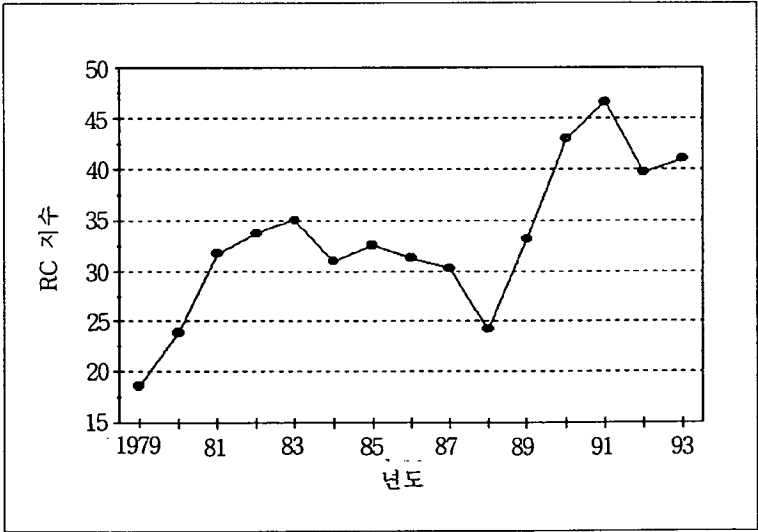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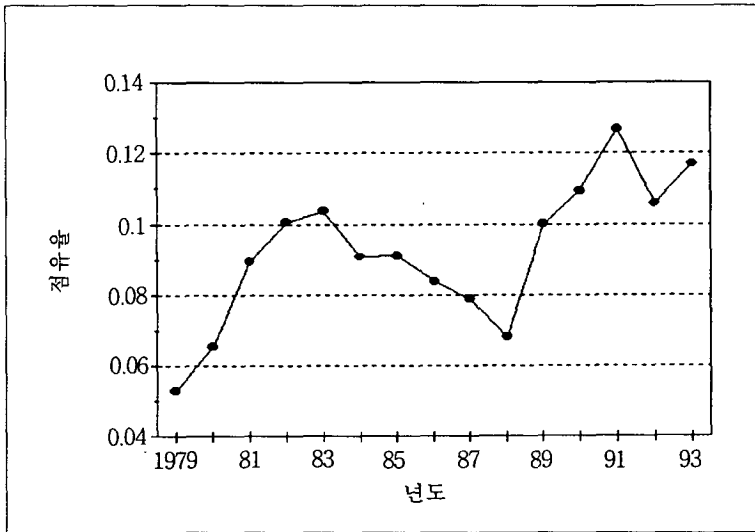


그림 4-10 분유의 시장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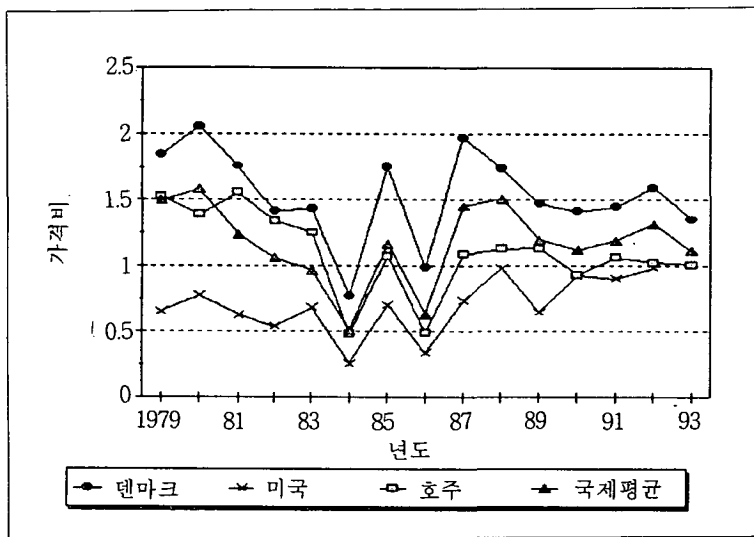


뉴질랜드 분유의 가격경쟁력은 국제 평균이나 덴마크에 비해서는 높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경쟁국인 호주와는 비슷한 가격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혁 이전에는 경쟁국들의 수출가격 지수가 뚜렷이 하락하고 있어 뉴질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4년의 농업개혁 이후 이러한 가격지수가 뚜렷이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양 모

양모는 기름을 제거한 것(Degreased)과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것(Greasy)으로 나누어 진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름을 제거한 양모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름을 제거한 양모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양모의 경우에도 같은 경쟁력 지수들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림 4-11 분유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분석 기간인 지난 15년간(1979~93년) 뉴질랜드 양모의 RC 지수는 150에서 9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양모 산업은 매우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변화가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양모의 RC 지수는 농업개혁 직후에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농업개혁 이전 3년간(1981~83년)의 RC 지수는 평균 126.2이었으나 개혁 초기(1986~88년)에는 123.7을 유하였으나 1991~93년 기간중에는 104.6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양모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뉴질랜드 양모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농업개혁이 실시된 1984년 이전에는 38%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1984년의 농업개혁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93년에는 27.6%로 낮아졌다. 개혁 전후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1981~83년 기간중 시장점유율은 평균 36.9%, 1986~88년 기간중 평균 33.4%, 1991~93년 기간에는 평균 28.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2 양모의 RC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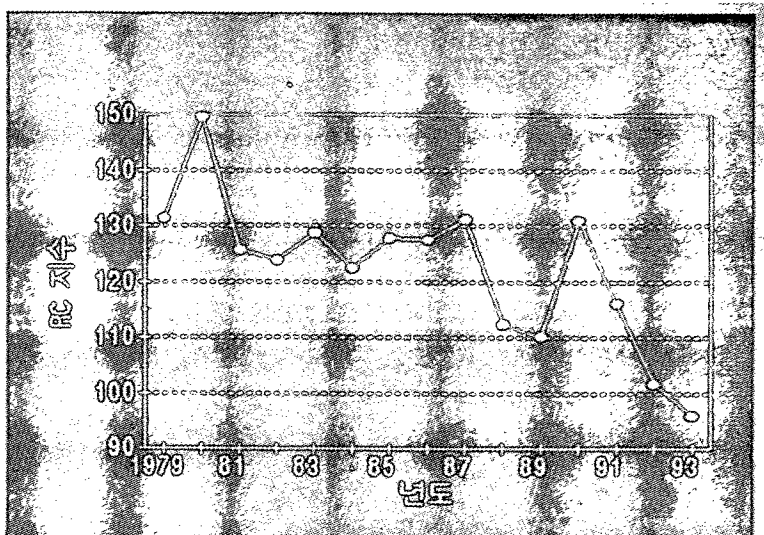


그림 4-13 양모의 시장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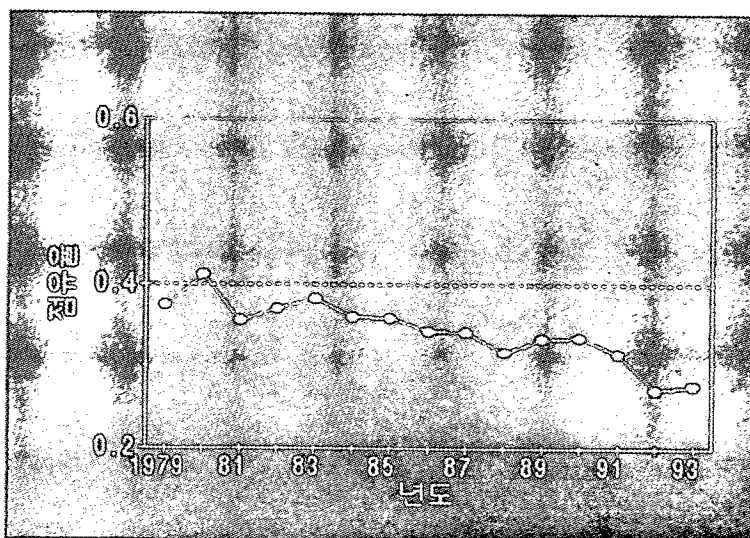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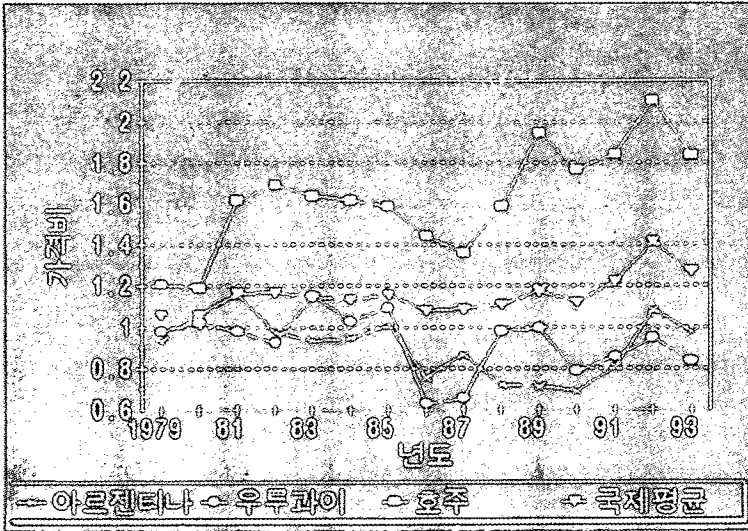


그림 4-14 양모의 가격경쟁력 변화



양모의 가격경쟁력은 호주에 비해서는 높으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 비해서는 낮다. 국제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20% 정도 가격이 낮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 전후의 가격경쟁력 변화는 뚜렷하지 않으나 호주와 국제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 사 과

사과는 뉴질랜드의 원예작물 가운데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사과 수출은 1985년 1억 6천만 뉴질랜드 달러에서 1995년 4억 8천만 뉴질랜드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과의 국제경쟁력 지수에서도 볼 수 있다. 사과의 RC 지수는 1979년 8.4에서 1993년 32.0으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사과는 매우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과의 RC 지수는 개혁 이전에는 비록 현재의 1/3 수준에 불과했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1984년 농업개혁 이후 4



년간은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체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1989년부터 급격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 개혁 이후의 부진을 회복하였다. 농업개혁 이전 3년간(1981~83년)의 RC 지수는 평균 9.9를 나타냈으나 1986~88년 기간에는 16.3, 1991~93년 기간 중에는 평균 28.6으로 크게 높아졌다.

사과의 시장점유율은 1979년 2.5%에서 1993년 9.1%로 증가하였다. 사과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개혁 이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1984년 농업개혁 이후 4년간은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감소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현상은 1989년부터 급격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농업개혁 이전 3년간(1981~83년)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3.0%를 나타냈으나 1986~88년 기간에는 4.3%, 1991~93년 기간 중에는 평균 7.8%로 크게 증가했다.

뉴질랜드 사과의 가격경쟁력은 국제 평균이나 호주를 제외한 기타 경쟁국들보다 낮다. 그러나 사과는 축산물과는 달리 생산의 계절적 요인으로 경쟁국들과의 출하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경쟁국은 호주로 볼 수 있으며 호주와는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사과의 RC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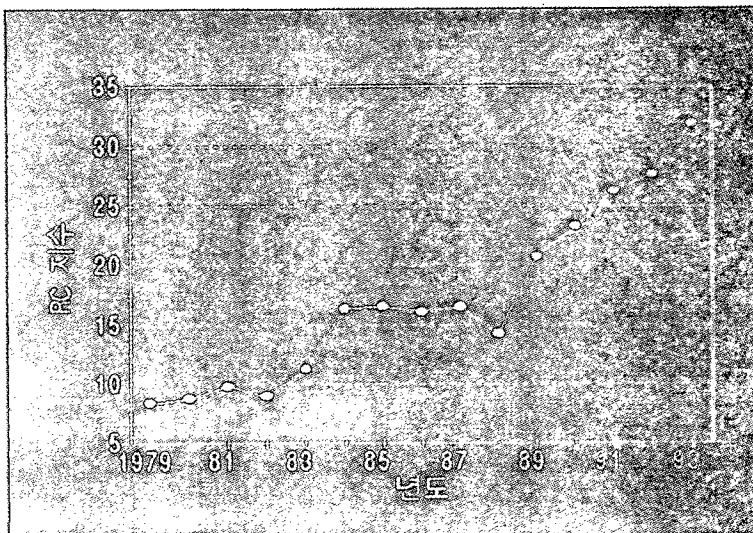


그림 4-16 사과 시장의 시장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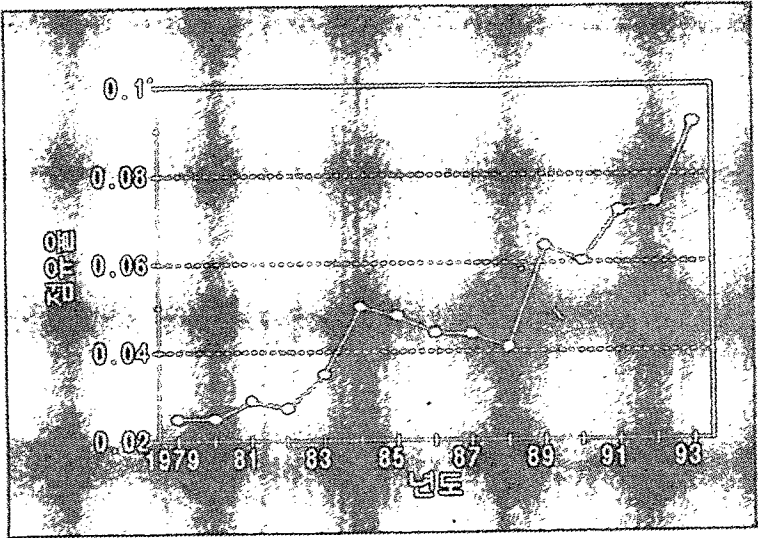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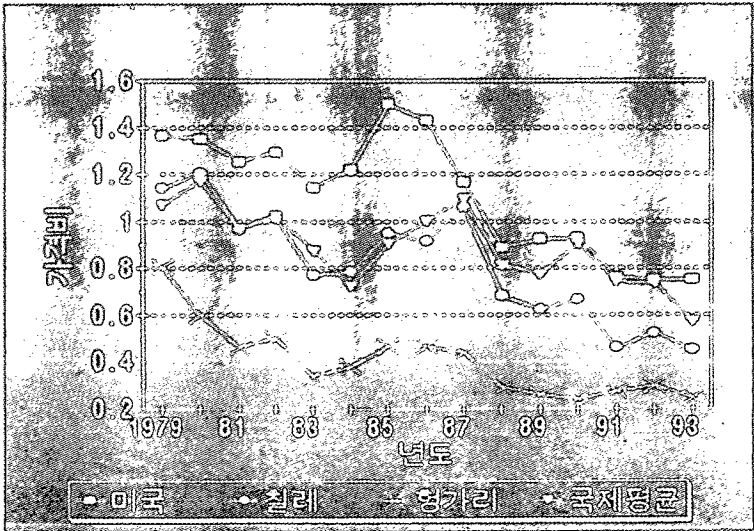


그림 4-17 사과의 가격경쟁력 지수 변화



## 바. 경쟁력 변화

이상의 품목별 경쟁력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은 쇠고기, 양고기 등 육류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낙농부문과 사과와의 경쟁력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양모의 경쟁력은 양고기와 같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농업구조의 변화와 유사하다. 개혁 이후 양과 비육우를 사육하던 농가들이 낙농과 원예로 전업을 하고 있어 낙농과 원예 품목의 생산액이 급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부문의 생산이 육류에서 낙농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개혁 이전에 육류부문이 낙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에 비육우와 양 사육농가들은 보조금에 의해 타농업부문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없어지자 보다 수익성이 높은 낙농업 부문으로 생산 자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다시 균형점에 이르기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표 4-7 뉴질랜드 주요 농산물의 RC 지수와 시장점유율 변화

| 연도   | 쇠고기  |       | 양고기   |       | 분 유  |       | 양 모   |       | 사 과  |       |
|------|------|-------|-------|-------|------|-------|-------|-------|------|-------|
|      | RC   | MS    | RC    | MS    | RC   | MS    | RC    | MS    | RC   | MS    |
| 1979 | 22.4 | 0.064 | 150.4 | 0.427 | 18.6 | 0.053 | 131.3 | 0.373 | 8.4  | 0.025 |
| 1980 | 21.8 | 0.060 | 152.9 | 0.419 | 23.9 | 0.065 | 149.5 | 0.411 | 8.8  | 0.025 |
| 1981 | 23.2 | 0.065 | 164.9 | 0.464 | 31.7 | 0.089 | 125.7 | 0.355 | 9.8  | 0.029 |
| 1982 | 21.1 | 0.063 | 151.8 | 0.453 | 33.7 | 0.100 | 123.9 | 0.371 | 8.9  | 0.027 |
| 1983 | 24.6 | 0.073 | 160.9 | 0.476 | 35.0 | 0.104 | 128.9 | 0.382 | 11.3 | 0.035 |
| 1984 | 20.7 | 0.061 | 171.1 | 0.501 | 30.9 | 0.091 | 122.5 | 0.360 | 16.4 | 0.050 |
| 1985 | 24.1 | 0.067 | 170.7 | 0.477 | 32.6 | 0.091 | 127.9 | 0.359 | 16.5 | 0.048 |
| 1986 | 16.9 | 0.045 | 152.1 | 0.408 | 31.3 | 0.084 | 127.5 | 0.343 | 16.1 | 0.044 |
| 1987 | 21.3 | 0.055 | 155.0 | 0.403 | 30.3 | 0.079 | 131.2 | 0.342 | 16.5 | 0.044 |
| 1988 | 19.7 | 0.056 | 131.9 | 0.371 | 24.2 | 0.068 | 112.4 | 0.317 | 14.3 | 0.041 |
| 1989 | 21.3 | 0.064 | 127.3 | 0.384 | 33.1 | 0.100 | 110.1 | 0.333 | 20.8 | 0.064 |
| 1990 | 18.7 | 0.048 | 142.7 | 0.364 | 42.9 | 0.109 | 131.0 | 0.335 | 23.3 | 0.060 |
| 1991 | 19.9 | 0.054 | 140.6 | 0.383 | 46.6 | 0.127 | 116.0 | 0.315 | 26.3 | 0.072 |
| 1992 | 20.1 | 0.054 | 143.5 | 0.382 | 39.7 | 0.106 | 101.8 | 0.271 | 27.7 | 0.074 |
| 1993 | 19.1 | 0.055 | 140.0 | 0.403 | 41.0 | 0.117 | 95.9  | 0.276 | 32.0 | 0.091 |

#### 4.3.4.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는 뉴질랜드가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인 쇠고기, 양고기, 양모 등 3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쇠고기의 경우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수입구조 반영 국별 경쟁력 지수(CAI)는 1989년 0.295에서 1994년 1.263으로 개선되었다. 쇠고기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중에 2.9%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가격 경쟁력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높으나 호주와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쟁력 CAI 지수가 1993년까지 1이하를 나타낸 것은 뉴질랜드 쇠고기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비관세 장벽에 의해 수입이 조절되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뉴질랜드의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고기의 경우 CAI 지수는 1988년 1.268에서 1994년 0.206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의 양고기 수입이 정제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뉴질랜드 양고기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양모의 경우도 CAI 지수가 같은 기간중에 0.883에서 0.172로 급격히 감소하여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8 한국시장에서의 CAI 지수 변화

| 연 도  | 쇠고기   | 양고기   | 양 모   |
|------|-------|-------|-------|
| 1988 | 0.052 | 1.268 | 0.883 |
| 1989 | 0.295 | 0.929 | 0.746 |
| 1990 | 0.556 | 0.653 | 0.625 |
| 1991 | 0.978 | 0.369 | 0.507 |
| 1992 | 0.634 | 0.382 | 0.180 |
| 1993 | 0.947 | 0.254 | 0.170 |
| 1994 | 1.263 | 0.206 | 0.172 |

## 제 5 장

#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함축성

### 1. 개혁의 성공요인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의 성공요인으로서 첫 번째로 정치체제의 단순성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책결정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한 결정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의 개혁의지와 지속성에 있다. 강하고 잘 조화된 정부의 리더십이 개혁을 주도하였고, 특히 Roger Douglas 재무상의 강한 지도력이 매우 빠르게 개혁을 진행시켰으며, 국회도 이에 적극 협조하였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1984년부터 개혁을 시작하여 1990년 국민당 집권 이후에도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경제는 소규모 국가경제로 인구가 350만명에 불과하고 농업수산업 등 일부 부문이 경제를 주도하는 단순한 소규모 국가형태는 국가 규모가 거대하고 인적구성과 경제형태가 복잡한 국가보다 개혁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구성의 평준화로 부의 분배가 균등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의 경제, 사회적 특성은 개혁으로부

터 잃는 자와 얻는 자의 차이를 극소화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대화와 설득을 가능하게 하여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2. 개혁의 특징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일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경제 전부분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권의 교체되어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자국 산업의 규제와 보호주의에서 과감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초기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공공부문에 기업의 책임경영원리를 도입하고, 정부사업의 국영기업화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보조(보호)를 축소하고 모든 분야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의 보호가 요구되는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와 정부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서비스 기능, 교육, 정보제공등 일부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었다.

부표 3-1 부문별 주요 경제안정 및 자유화 정책, 1978~93

| 년도   | 금융·재정·외환부문                                                                                                       | 산업·무역·노동부문                                               | 농업부문                                                                         |
|------|------------------------------------------------------------------------------------------------------------------|----------------------------------------------------------|------------------------------------------------------------------------------|
| 1978 |                                                                                                                  |                                                          | · 토지개발촉진제도 도입<br>· 양모, 육류 및 낙농산업<br>최저가격보조제도 도입                              |
| 1979 |                                                                                                                  | · 수출촉진세금우대제도                                             |                                                                              |
| 1980 |                                                                                                                  |                                                          | · 양계위원회 설립<br>· 수출도축장 허가제 폐지                                                 |
| 1981 |                                                                                                                  | · 무역보호를 관세화로<br>전환                                       | · 육류 무역계정설정<br>(낙농, 1954; 양모, 1976)                                          |
| 1982 | · 고정환율제 재도입                                                                                                      |                                                          |                                                                              |
| 1983 |                                                                                                                  | · 호주와 CER 협정                                             |                                                                              |
| 1984 | · 금리동결해제<br>· 금리 및 신용규제 철폐<br>· 물가동결해제<br>· 농업은행(RBFC)이자율<br>점차적 시장금리적용                                          | · 수출보조금제도 폐지<br>· 임금동결해제<br>· 국내외 직접투자관련<br>규제 폐지        | · 농산물가격지지제도<br>(SMP) 폐지<br>· 생산자 Board의 중앙은행<br>계정 상업이자율적용<br>· 비료·관개용수 보조폐지 |
| 1985 | · 금융기관 의무투자비율<br>규제 철폐<br>·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 · 정부사업 국영기업화<br>· 산업보조금 대폭 감축                            | · 농지개발촉진제도 폐지                                                                |
| 1986 | · GST 도입 (10%)                                                                                                   |                                                          | · 농림수산부예산 점진적<br>감축                                                          |
| 1987 | · 정부재산 매각(부채청산)<br>· 은행설립 자유화<br>· 관세인하                                                                          | · 노사관계법제정으로 개<br>별 기업단위 임금교섭제도<br>도입                     | · Wheat Board 폐지<br>· 육류농가 수입안정계정 폐<br>지                                     |
| 1988 | · 세제 및 관세 제도 개혁<br>· GST세율 12.5%로 인상<br>· 소득세율단순화 및 법인세<br>율인하                                                   | · 9개 국영사업체 설립                                            | · Kiwifruit Marketing<br>Board 설립<br>· 양계위원회 폐지                              |
| 1989 | · 정부부처 운영지출 삭감<br>· 90·91년도 재정적자 0%로<br>운영 발표<br>· 준비은행법개정으로 독립성<br>강화 및 가격안정 우선<br>· 물가상승을 1992년 달성<br>목표 0-2%. |                                                          | · 농업은행(RBFC)<br>민영화                                                          |
| 1990 | · 금융시장위원회 설립<br>· 관세인하(1991-1996)                                                                                | · 고용계약법제정으로 노<br>동조합의 임의 가입허용<br>및 조합설립 자유화<br>· 전화회사 매각 |                                                                              |
| 1991 |                                                                                                                  | · 자원관리법안 통과                                              | · 낙농위원회 개정법안<br>통과로 독립성 확보                                                   |
| 1993 |                                                                                                                  | · 에너지부문 개혁법안으<br>로 국영화 및 민영화 추<br>진                      |                                                                              |

부표 4-1 축산업 품목별 농업보조

단위: 백만 NZ\$

| 3월 회계년도 |                       | 1975 | 1980 | 1982 | 1984 | 1985 | 1986 | 1988 | 1990 |
|---------|-----------------------|------|------|------|------|------|------|------|------|
| 양고기     | 안정기금 <sup>1)</sup>    | 0    | 0    | 72   | 278  | 346  | 176  | 0    | 0    |
|         | SMP                   | 26   | 0    | 53   | 264  | 201  | 65   | 0    | 0    |
|         | 기타                    | 1    | 21   | 31   | 34   | 34   | 37   | 20   | 21   |
|         | 생산물 총보조금              | 27   | 21   | 156  | 576  | 576  | 278  | 20   | 21   |
|         | 할당된 보조금 <sup>2)</sup> | 18   | 49   | 60   | 81   | 72   | 64   | 76   | 24   |
|         | 총보조금                  | 45   | 70   | 216  | 657  | 654  | 342  | 96   | 45   |
|         | PSE <sup>2)</sup>     | 24   | 15   | 36   | 90   | 80   | 75   | 14   | 5    |
| 양모      | SMP                   | 2    | 0    | 148  | 82   | 14   | 0    | 0    | 0    |
|         | 생산물 총보조금              | 2    | 0    | 148  | 82   | 14   | 0    | 0    | 0    |
|         | 할당된 보조금               | 22   | 84   | 96   | 108  | 111  | 151  | 157  | 42   |
|         | 총보조금                  | 24   | 84   | 244  | 190  | 125  | 151  | 157  | 42   |
|         | PSE                   | 11   | 10   | 26   | 19   | 10   | 14   | 11   | 3    |
| 쇠고기     | 안정기금                  | 0    | -44  | 27   | -3   | -9   | 0    | 0    | 0    |
|         | SMP                   | 0    | 0    | 43   | 0    | 0    | 0    | 0    | 0    |
|         | 기타                    | 1    | 9    | 14   | 15   | 15   | 16   | 9    | 9    |
|         | 생산물 총보조금              | 1    | -35  | 84   | 12   | 6    | 16   | 9    | 9    |
|         | 할당된 보조금               | 18   | 64   | 60   | 79   | 94   | 110  | 107  | 36   |
|         | 총보조금                  | 19   | 29   | 144  | 91   | 100  | 126  | 116  | 45   |
|         | PSE                   | 10   | 5    | 24   | 13   | 9    | 16   | 12   | 3    |
| 유제품     | 안정기금                  | 102  | 116  | 49   | 0    | 0    | 0    | 0    | 0    |
|         | SMP                   | 0    | 17   | 0    | 0    | 0    | 0    | 0    | 0    |
|         | 시유 보조금                | 6    | 13   | 13   | 15   | 19   | 19   | 8    | 0    |
|         | 기타                    | 2    | 5    | 8    | 9    | 9    | 9    | 5    | 5    |
|         | 생산물 총보조금              | 111  | 151  | 69   | 24   | 28   | 29   | 13   | 5    |
|         | 할당된 보조금               | 35   | 71   | 103  | 131  | 127  | 216  | 160  | 69   |
|         | 총보조금                  | 146  | 222  | 172  | 155  | 155  | 244  | 173  | 74   |
|         | PSE                   | 40   | 32   | 17   | 13   | 11   | 16   | 12   | 3    |

주: 1) Mea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2) Apportioned Factor: 품목별 생산투입재 및 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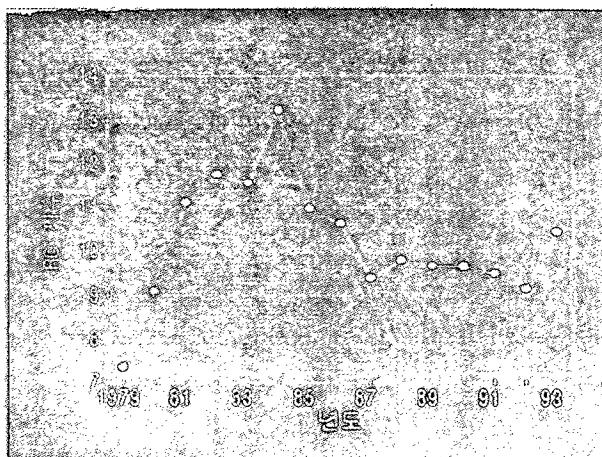
자료: Ron Sandrey and Russell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M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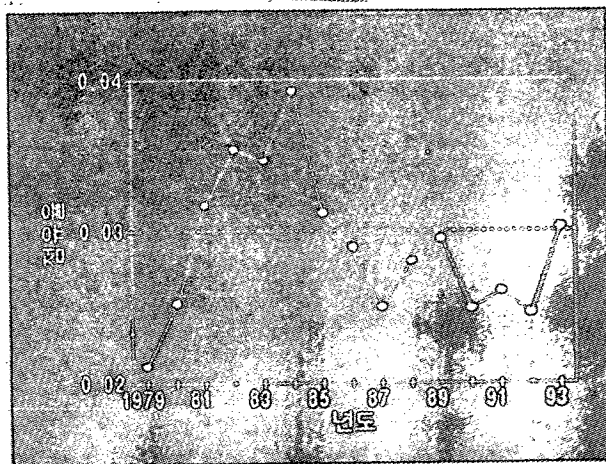
부표 4-2 주요 농산물의 RC 지수와 시장점유율 변화

| 연 도  | 버 터  |       | 치 즈  |       | 양 모  |       |
|------|------|-------|------|-------|------|-------|
|      | RC   | MS    | RC   | MS    | RC   | MS    |
| 1979 | 36.0 | 0.102 | 7.3  | 0.021 | 51.1 | 0.145 |
| 1980 | 37.1 | 0.102 | 9.1  | 0.025 | 57.9 | 0.159 |
| 1981 | 34.7 | 0.098 | 11.1 | 0.032 | 48.5 | 0.137 |
| 1982 | 36.7 | 0.128 | 11.8 | 0.035 | 44.0 | 0.131 |
| 1983 | 50.7 | 0.154 | 11.6 | 0.035 | 50.7 | 0.150 |
| 1984 | 49.4 | 0.145 | 13.2 | 0.039 | 50.7 | 0.148 |
| 1985 | 50.0 | 0.140 | 11.0 | 0.031 | 48.4 | 0.135 |
| 1986 | 47.0 | 0.126 | 10.6 | 0.029 | 41.7 | 0.111 |
| 1987 | 34.4 | 0.089 | 9.4  | 0.025 | 41.4 | 0.108 |
| 1988 | 32.5 | 0.091 | 9.8  | 0.028 | 34.1 | 0.096 |
| 1989 | 32.5 | 0.098 | 9.7  | 0.030 | 30.7 | 0.092 |
| 1990 | 52.0 | 0.132 | 9.7  | 0.025 | 30.3 | 0.077 |
| 1991 | 35.3 | 0.096 | 9.5  | 0.026 | 26.9 | 0.073 |
| 1992 | 42.0 | 0.111 | 9.2  | 0.025 | 27.6 | 0.073 |
| 1993 | 44.5 | 0.127 | 10.5 | 0.030 | 21.3 | 0.0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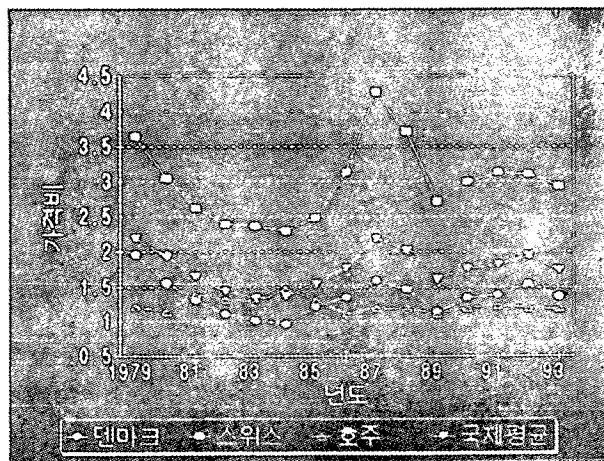
부도 4-1 치즈의 RC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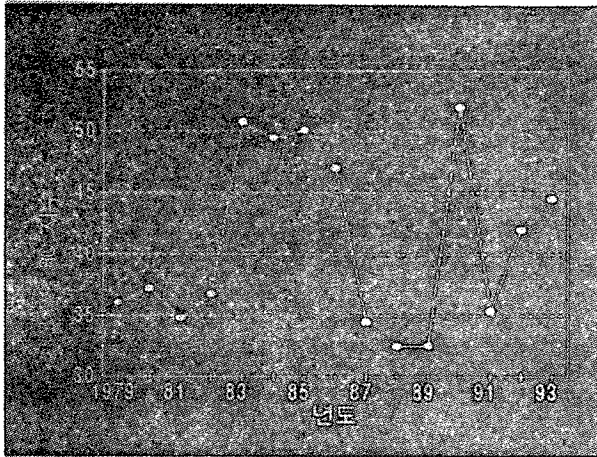
부도 4-2 치즈의 국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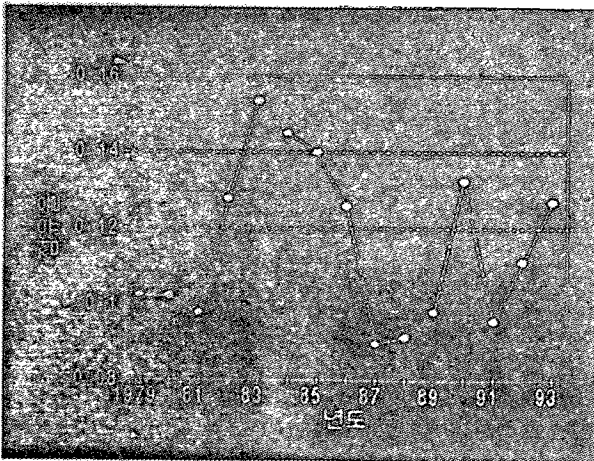
부도 4-3 치즈 가격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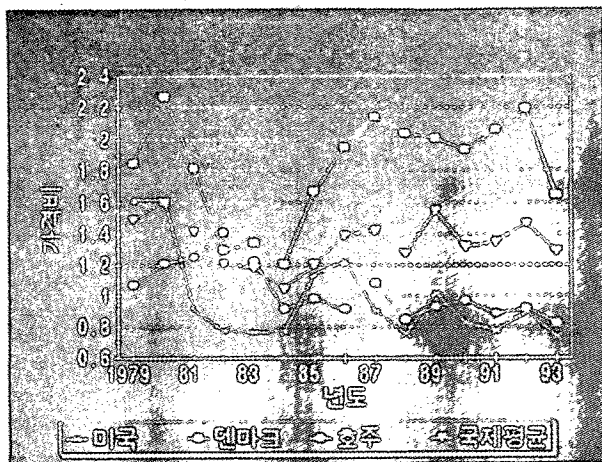
부도 4-4 버터의 RC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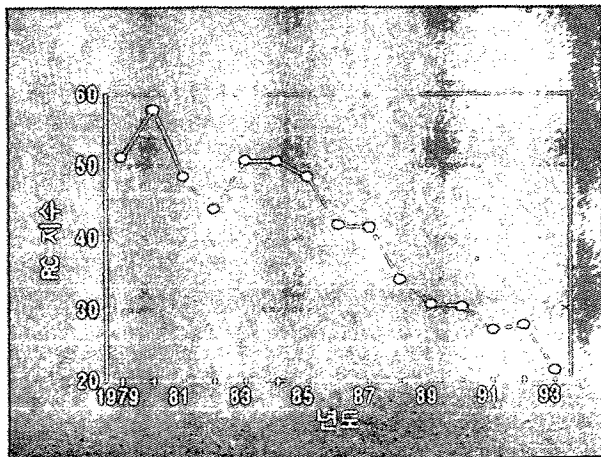
부도 4-5 버터의 국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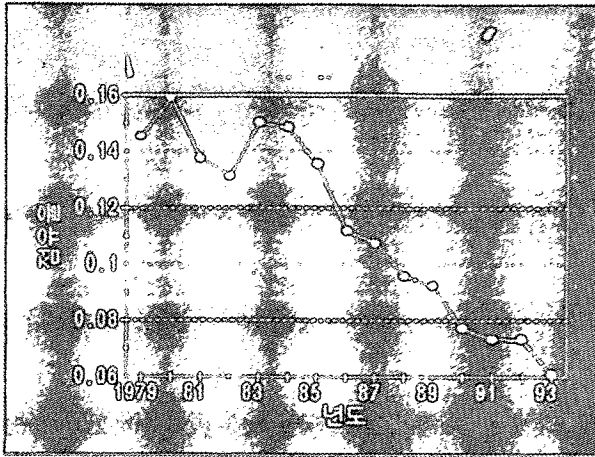
부도 4-6 버터 가격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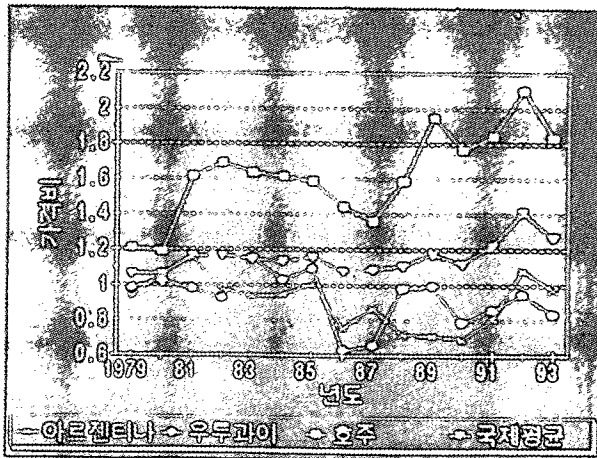
부도 4-7 양모의 RC 지수 변화



부도 4-8 양모의 국제시장 점유율



부도 4-9 양모 가격경쟁력



## 참 고 문 헌

- 강인수,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A115 S1 V.93-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09, 1993. 3.
- 구본호 외 “개방화 경제에서 수출경쟁력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무역 및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1994. 11.
- 김준현 외, 섬유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자동화 추진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81, A103 S8 V.281, 1993. 6.
- 노성호 외, 의류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구조고도화, 산업연구원, 연보 170, A103 S8 V.170, 1989. 8.
- 박진수, 국제화 시대 맞이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A103 S8 V.321, 1994. 6.
- 박태규,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경쟁력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330.08 한237 V.226, 1992. 3.
- 심영섭,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권역별 경쟁력 분석, 윤재형, 산업연구원, 연보369, A103 S8 V.369, 1995. 12.
- 이종욱, 한국전자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A105 S1 V.89, 1992. 7.
- 정영록,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115 S1 V.91-01, 1992. 1.
- 정창영 외 “국제경쟁력 측정의 실증적 고찰,” 한국경제연구총서, 78-7, 대한상공회의소, 1978.
- 최인범,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115 S1 V.93-43, 1993. 12.
- Birks, Stuart and Srikanta Chatterjee. The New Zealand Economy: Issues and Policies, Dunmore Press. 1992.
- Chamberlin, Brian. Farming and Subsidies: Debunking the Myths, Euroa

Farms Ltd. 1996.

Chung, C.Y. et. al., 「The Measurement of Comparative Advantage」, The Korea Economic Research Center, Report No. 1-102, 1978. 10.

Davison, R. M. "Agricultural Land Use Change with Reference to Sheep and Beef Farm Land Salient Points," N.Z.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Paper No. G2107. July, 1996.

ERS, USDA. Pacific Rim, Agriculture and Trade Report, Situation and Outlook Series RS-92-2 Sept. 1992.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pp. 53.

Gibson, J. and Lattimore, R. "Cause of the Patterns of Manufacturing Industry Assistance in New Zealand 1981/1982," NZ Economic Papers 25(1), p. 100-122.

Gardner, Bruce, L. "Liberalization in New Zealand Agriculture: Discussion," Vol 76 pp. 1053-54.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December, 1994.

Han, J. Y. et al.,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Report No. 168, 1989. 7.

Irfanul Haqu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action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World Bank, EDI Seminar Series, 1990. 4.

Johnson, R.W.M. "New Zealand Agricultural Policy Review: 1991-1993.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Vol.61. No.3. December, 1993.

Johnson, R.W. "Current Changes in New Zealand Agriculture: A Review,"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Vol. 59. No.2 August, 1991.

Johnson, R.W., W.R. Schroder, and N.W. Taylor, "Deregulation and the New Zealand Agricultural Sector: A Review,"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Vol 57. Nos.1,2,3. 1989 : pp 47-74.

Johnston, W.E. and G. A.G. Frengley. "Economic Adjustment and Changes in

- Fiscal Validity of the Farming Sector: New Zealand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6. pp.1034-1040. December, 1994.
- Koo, B.H. et al.,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Promoting Export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an Open Economy,"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15, No. 2, pp 1-26, Nov. 1994.
- Mahmood Z., "Assessing the Potential and Direction of International Trade Flows in Agricultural Commodities: A Case Study of Pakistan," ESCAP Regional Seminar on Assessing the Potential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Trade within the ESCAP Region, Bangkok, Nov. 1994.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SONZA)," Various issues.
- New Zealand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Compendium of New Zealand Farm Production Statistics," Twenty-Sixth Edition, August, 1995.
- New Zealand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Annual Review of the New Zealand Sheep and Beef Industry," Various issues
- Park, J.S.,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Industries Under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Report No. 321, 1994. 6.
- Pasour, E.C. Jr. and Scrimgeour, F.G. "New Zealand Economic Reforms: Implications for U.S. Farm Policy," Choices, Second Quarter, 1995.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 Shim, Y.S. et al., 「Korea's Competitiveness in Export Market by Reg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Report No. 369, 1995. 12.
- Sandrey, R.A. and Russell Reynolds edited. "Farming without Subsidies: New Zealand's Recent Experience," A MAF Policy Service Project



- Sandrey, R.A. and Scobie, G.M. "Chang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rade: Recent Experience in New Zealand Agricul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6. pp.1041-1046. December, 1994.
- Walker, Allan and Brian Bell. "Aspects of New Zealand's Experience in Agricultural Reform Since 1984," MAF Policy Technical Paper, MAF. May, 1994.
- Yamauch, H., "Analysis of Shifting Patterns of Production, Specialization and Trends of Selected Trade Indices," ESCAP Regional Seminar on Assessing the Potential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Trade within the ESCAP Region, Bangkok, Nov. 1994.

빈

면

연구보고 R 355

##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

찍은날 1996. 12.                      펴낸날 1996. 12.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범 신 사 ☎720-9786~9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